4. 김중원(金中源)

1) 지나사변 후 조선인 무훈담

1937년 이래 '지나사변'[6], '노몬한' 사건, 금차의 태평양전쟁 등의 성전에 신명을 바쳐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존귀한 넋으로 사라진 우리 황군장병 가운데서도 '노몬한' 사건 당시 지인태(池麟泰) 항공병 대위며 태평양전쟁의 최명하(崔鳴夏) 항공병 중위의 장렬한 최후의 전사는 2천4백만 반도 민중의 자랑으로서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더욱이 그들의 반도출신의 장교로서 혁혁한 무훈을 세우고 최초의 전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감격은 한 층 깊다. 그런데 지난 2월 초 지나사변 생존자 논공행상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의 부대장' 김석원 중좌(金錫源 中佐)는 북지전야에서 발군의 수훈을 세웠음에 의하여 수훈갑(殊勳甲)의 은명을 배수하였으니 이 모두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랴.

수훈갑의 김석원 중좌

반도인으로서 최초로 광영에 넘치는 수훈갑의 은명을 배수한 무인은 김석원 중좌이다. 전첩에 빛나는 신춘을 맞이한 지난 2월 3일 제24희 중일전쟁 생존자 논공행상이 발포되었을 때, 북지의 전야에서 청사에 길이 빛날 발군의 무훈을 세운 김 중좌에게 무인 최고의 영예인 수훈갑 공삼급중수장(功三級中綬章)의 은명이 내리어 향토의 명예를 하늘로 높이 떨치었던 것이다. 김 중좌는 경성부 재동(齋洞)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육군유년학교(陸軍幼年學校) 육군사관학교(제27기생)를 거쳐 육군보병학교(陸軍步兵學校)를 졸업한 후 중위시대부터 중좌로 승진하였을 때까지 전후 15년간 조선 제22부대에서 주유로 군무에 정려하였다. 만주사변 당시에는 만주에 용약 출정하여 욱사(旭四)의 광영을 입었고 지나사변이 일어난 1937년 7월에는 북지에 또한 출동하여 찬연한 무훈을 세우고 이번이 두 번째의 은명을 배수한 터인데 김중좌는 현재 다시 북지 ○○에서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전에 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김중좌가 당시 천안병단(川岸兵團) 대대장으로서 사변발발 즉시 출동하여 ○○에 도착한 것은 7월 ○○일로 김중좌가 지휘하는 부대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먼저 지나사변 발단의 장본인인 송철원군(宋哲元軍)의 제29로군을 격파하게 되었다. 총후적성에 불타는 2천4백만 반도 민중의 여망을 온몸에 지니고 제일선에선 김중좌는 용솟음쳐 올라오는 용기를 북돋워가지고 송철원군대가 우글우글하는 단하촌(團河村) 행궁(行宮)을 향하여 제일격을 가하고자 행군을 개시하였다. 1천5백여 명의 적군을 만난 김부대 용사들은 부대장의 지휘도가 일섬(一閃)하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적군의 박격포탄과 기관총탄이 빗발치듯 내려쏘이는 것을 무릅쓰고 장병의 사기와 공격정신이 더욱 왕성한 가운데 '김부대'는 함성을 울리며 돌격전으로 옮겨 적군과의 사이에 장렬한 백병전을 연출하였으니 적전 1백 5십 미터까지에 접근한 김부대의 과병은 대적과 용전분투한 끝에 마침내 행군산 꼭대기에 감격의 일장기를 높직이

6) 중일전쟁.

꽂고, 이곳을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다. 이날은 바로 7월 ○○○일로 김부대장이 향토를 떠난 지 겨우 11일째 날이었다. 과감신속한 전격전으로 송철원군의 일부를 무찔러버린 김부대는 다시 쉴 사이도 없이 남원(南苑)을 공략하여 28일에 이곳을 점령하고 말았다. 남원의 격전은 천안병단에 소속된 각 부대가 용전분투한 격전장으로서 단연 이름난 곳인데 김부대장은 이 격전에서 적탄을 맞고 부상까지 입었으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부하가 메는 담가(擔架)[7] 위에 올라앉아서 돌격의 호령을 내리어 끝까지 지휘하였다. 여기에 용기를 얻고 감격한 황군장사들은 '우리 부대장의 원수를 갚자!'는 외침과 함께 장렬 무비한 돌격을 감행하여 격전을 한 홍[8] 남원을 완전히 점령하고 만 것이다. 이 전투에서 김부대장이 사랑하는 군마 후꾸데쓰(福徹)호도 전사하였다. 남원전투에서 명예의 부상을 입은 김부대장은 몇 번이나 후송되는 것을 거절하였으나 재기봉공(再起奉公)할 날을 꿈꾸며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1938년 2월, 우리 부대장이 병상에서 손꼽아 기다리던 재기의 날은 돌아왔다. 유명한 산서성(山西省) 영석(靈石)의 격전을 맞이한 것이다.

당시 영석부근에는 적군 제54사 3천 명이 견진(堅陳)을 치고 공격의 틈을 엿보고 있었다. 백의를 벗어버리고 다시 제일선에 나선 김부대장은 영석공략전에서 한 몸을 국가에 바칠 각오를 든든히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서 전 부대가 전사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격전이 개시되기 전에 김부대장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부하들에게 전부 자기 고향으로 최후의 편지를 쓰게 하였다. 장병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다.

진충보국에 불타는 부대장 이하 장병일동은 먼저 동쪽을 향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요배를 하고 비밀서류를 전부 태워버렸다. 피 묻은 군도를 번쩍 들은 김부대장의 얼굴에는 결사의 빛이 떠올랐다. 여기서 감격에 사무친 장병은 최후로 군가를 힘있게 노래 부르고 적군의 섬멸전을 개시하였다. 백의의 몸으로 있는 동안에 몇 달 동안 봉공하지 못하였다는 느낌을 새롭게 한 김부대장은 전보다도 2배 10배나 더 싸워야 한다는 결심으로 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견진에 머물러 가지고 집중포화를 퍼붓는 적군은 의외로 완강하였다. 적군은 이편이 소수라고 넘보고 저항하였던 것이다. 적군의 진지는 천연요새라고 할 만한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그러나 돌격에 돌격을 거듭하여 일발필살(一發必殺)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싸움을 싸우는 우리 황군장병 앞에는 적군이 다수를 믿고 저항하였으나 그것은 헛일이었다. 이에 여러 날에 걸친 백병전을 연출하여 작전의 묘기를 발휘하여 김부대는 마침내 영성의 산위에 감격의 일장기를 높이 달았다. 이 전투에서 적군의 거의 반수는 전사하고 말았다. 김부대장의 용명(勇名)이 떨쳐진 것도 영석의 이 산악전에서였다. 그래서 그 해 7월 당시의 향월(香月) 군사령관은 과병으로 능히 적군을 철저히 섬멸한 빛나는 공훈에 의하여 김부대장에게 영예의 감장(感狀)을 수여하였다.

영석 격전 후 북지의 산야에 이름을 떨친 김부대는 다시 대륙의 전야에서 전투에 참가한 것은 실로 1백여 차에 달하는데 그 위훈이야말로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백전연마의 김부대장이 제일호국의 꽃으로 사라진 용사의 유골을 전우가 따뜻한 가슴에 안은 채 후

---

7) 들것.
8) '후'의 오기로 보임.

마진(候馬鎭)으로 쳐들어갔다. 이곳에서 적군의 대부대를 격멸한 김부대는 또 유명한 운성(運城)전투에 참가하였으며 길현(吉縣)에서는 염석산군(閻錫山軍)과도 만나 교전하여 혁혁한 무훈을 세웠던 것이다. 김부대장이 전선으로부터 개선한 것은 1939년 1월경이었다. 필자는 김중좌를 직접 대면하여 각지 전투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김중좌는 당시 제일선으로부터 개선하자 전 조선 각지로 유세하며 특히 반도 민중의 황국신민화와 풍속의 개선, 문화향상 등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쓴 것은 일반이 다 잘 아는 바이고 또 제일선에 출동하기 직전인 1937년 7월 14일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반도민중은 총후적성을 다하여 지나사변 완수에 매진하라!"고 힘있게 외친 것 역시 유명한 일이거니와 김중좌는 성남(城南)중학을 설립하는 등 반도청년의 연성에도 특히 노력한 전형적 무인이다.

그런데 김중좌의 자택은 현재 경성부 내 명륜정(明倫町) 3정목 107번지에 있는데 자택에는 달자(達子)부인, 경성제국대학 예과 재학중인 장남 철웅(哲雄)군, 창경(昌慶)국민학교 1년생인 삼남 국웅(國雄)군이 있고, 차남 수웅(秀雄)군은 현재 육군 예과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부친의 뜻을 받들어 광영의 제국군인이 되고자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노몬한 공중전(空中戰)의 화(華) 지인태 항공병 대위

노몬한사건 당시 반도출신 최초의 항공장교로서 외몽고의 넓은 들을 피로 물들이고, 장렬한 전사를 한 사람은 전주(全州)출신의 지인태 항공병 대위이다.

1939년 여름 노몬한사건으로 제일선의 항공장교로서 외몽고에 출동한 지대위는 우리 황군과 소련군과의 전투가 차츰 절정에 달하여 팔방에서 전차전 공중전 등 현대 과학의 정수를 다한 혈전이 전개되었을 때 적군의 근거지를 뿌리도 없이 격파하여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용약 단기(單機)로 초연(哨煙)에 휩싸인 상패자(桑貝子)부근의 대전장을 내려다보며 출동하였다. 소련군의 근거지를 여지없이 때려 부숴버리겠다고 하여 적군진지를 향하여 출동한 지대위는 그날 밤이 깊도록 기지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대위가 탑승한 비행기의 폭음은 출동할 때의 여음을 최후로 남기고 영영 들려오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지대위는 어찌되었는가?' 산본(山本) 부대장 이하 장병들은 과감한 전투를 하면서 그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나 소식은 요연하였다.

그해 9월 16일 노몬한사건이 일소정전협정(日蘇停戰協定)으로 일단락을 고하여 우리 황군이 대승리를 얻은 후 관동군에서 얼마동안을 두고 고심 탐사한 결과 마침내 지대위가 자폭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혁혁한 무훈을 세우며 황국을 위하여 심혈을 다해 과감용맹한 전투를 하여 오던 지대위가 단기로 출동한 그날 적군기지를 격파한 위에 적 공군편대와 만나자 공중전을 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비행기와 더불어 자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1940년 8월 신경(新京)에 있는 산본 부대장은 이 사실을 조선군에까지 알려와서 그의 장렬한 공격정신과 더불어 일사봉공의 참된 정신을 격찬하였던 것인데 몽고 상패자 부근에서 장렬한 전사를 한 후 근 1년 동안이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지대위는 과연 어떠한 무훈을 세웠던 것인가?

지대위가 중대한 사명을 띄우고 단기로 출동한 날은 바로 1939년 7월 2일이었다. 지대위가 조종하는 비행기는 상패자 부근 상공에 이르렀다. 적군기지를 샅샅이 정찰하고 격파한 후에 기지로 귀환하려고

유유히 기수를 돌렸을 때 전면과 후면으로부터 난데없이 적군 전투기 10여기가 밥을 노린 벌떼와 같이 달려들었다. 동시에 지상포화는 지기(池機)를 노리고 터지기 시작하였다. 전후좌우에서 기총은 터진다. 이 편은 단기이다 적군은 다수를 믿고 덤벼든 것이다.

단독의 힘으로 대공중전에서 승리를 얻으려던 지대위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적기와 싸웠으나 형세가 불리하게 됨을 보고는 단념하였다. 드디어 사랑하는 비행기를 조종하여 적군이 우글대는 진지를 노리고 급강하여 장렬한 자폭을 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상패자의 넓은 들을 피로 물들이며 전전한 지대위는 반도출신 최초의 항공병 장교로 용명을 떨쳤을 뿐 아니라 또 반도인 장교로서는 최초의 장렬한 전사를 하여 실로 지나사변과 노몬한사건을 통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한 존귀한 주추돌로 사라져서 그 거룩한 명예는 천추에 빛날 것이다.

그런데 지대위의 유골을 발견하자 관동군에서는 1940년 7월 중순 산본 부대에서 성대한 고별식을 집행하였고 다시 유골은 그 해 8월 14일 산본 부대 장교의 따뜻한 품에 안기어 경성역을 통과하여 고향인 전주부(全州府) 완산정(完山町) 562번지 실형 지봉태(池鳳泰)씨에게로 무언의 개선을 하였던 것이다.

난인(蘭印)[9] 상공에서 자폭한 최명하 항공병 중위

작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 발발 후 우리 정예 황군은 하와이, 필리핀 혹은 홍콩(香港), 말레이에서 혁혁한 대전과를 거두어 세계를 경도케 하였거니와 미영격멸의 붕익을 태평양 상에 펴고 종횡무진으로 대활약을 하여 세계전사에 찬연한 금자탑을 쌓어 올리고 있는 우리 황취(荒鷲)의 수훈은 연일 신문과 라디오를 통하여 보도되어 1억 국민의 환희와 감격을 짜내고 있다. 미영기지의 폭쇠에 혹은 전함에 폭격에 수송선단의 원호에 적상의 정찰에 혹은 지상부대와의 협력 작전 등에 우리 제국공군이 직접 참가하여 빚어낸 가지가지의 장렬무비한 싸움은 오로지 세계무비의 정신력에 의하여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육해군의 위력과 함께 우리 항공부대의 위력은 적극적으로 하여금 공포와 전율 속에 빠지게 하였다. 찌는 듯한 염렬을 무릅쓰고 적도 아래 태평양상공을 날며 숙적 미영의 동아의 심장부를 노리고 거탄의 비를 퍼붓는 항공장병의 수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일즉이는 장역(蔣逆)[10]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며 남지(南支)방면에서 활약하다가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항공부대의 장교로서 제일선부대에 소속되어 미영격파에 존귀한 충혼을 발한 반도인 항공병 장교가 있다.

그는 경북 선산군(善山郡) 선산면(善山面) 북산동(北山洞) 무산동욱(武山東昱)씨의 차남 무산륭(武山隆, 구명 최명하(崔鳴夏))(25) 항공 중위이다. 무산중위는 1936년 1월 대구중학을 졸업하고 4월에는 즉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영예의 제국군인으로서의 기초를 닦고 1938년 동교 항공과를 나오자 소위로 승진되었다. 특히 재학시에는 현재 ○○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석원 중좌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

9)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10) 장개석(蔣介石)을 일컬음.

는 소위로 승진하자 먼저 소만(蘇滿)국경경비에 종사하였고, 1940년 11월에는 남지방면으로 출동하여 활약하는 중 1941년 여름에 중위로 승진한 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최초의 반도인 항공병 장교로서 말레이 전선 등 각 전선에 참가하여 중대한 임무를 다하며 마침내는 혁혁한 무훈을 세우고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蘭印) 상공에서 대동아건설의 존귀한 꽃으로 사라진 것이다.

무산중위는 향토의 명예를 두 어깨에 지니고 영예의 제국 황취로서 미영격멸의 붕익을 펴고 활약하였다. 말레이 전선의 싸움이 고조에 달하였을 때 무산기(武山機)는 영국의 동아침략근거지 싱가포르를 비롯한 적군기지를 종횡으로 유린하며 적군전투기와 장렬한 공중전을 하여 다대한 공훈을 세웠음을 물론 우리 폭격기편대를 옹호하면서 황군작전을 유리하게 하여, 빛나는 전과를 거두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17일이였다. 우리 무적황군부대는 대편대로서 수마트라의 팔렘방[11] 대공습을 감행하였다. 이때 우리 무산기도 참가하였다. 적의 공군기지 팔렘방 상공을 제압하고 적군의 진지 상공에 이르렀을 때 폭격기를 엄호하고 간 무산기는 마침내 상공으로 떠오른 적군 전투기와 격렬한 공중전을 전개하였다. 우군기(友軍機)가 쏘는 기탄을 적군기지에 한 개 한 개 명중하여 큰 화재를 일으킨다. 적기는 전후좌우에서 폭격기를 엄호한 무산기를 향하여 총격을 가해왔다. 맹렬한 공격정신에 불붙는 무산중위는 적 전투기를 단숨에 삼킬 기개를 가지고 적기편대 사이로 돌입하였다. 여기서 무산기는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생각건대 무산기는 과감한 공중전을 하다가 적탄을 맞고 전투가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자 적군진지 상공에서 장렬무비한 자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 사실이 지난 1월 28일 전사로 추정된다고 ○○부대장으로부터 공보가 그의 고향에 까지 전달된 것이다. 이는 금차의 태평양전쟁에 있어서 반도인 항공사관으로서최초의 전사인 만큼 애국지성에 불타는 반도민중을 더욱 감격시켰다.

그런데 무산중위는 작년. 달남방[12] 모 기지로부터 그의 부친에게

원방지국(遠方之國) 말레이도착(馬來到着), 매일용약출동(每日勇躍出動), 연이적기미약고불금비육지탄(然而敵機微弱故不禁脾肉之嘆), 여불비백(余不備白)

이라고 하는 엽서를 보내어 왔었다. 서신에도 그의 감투정신과 적 공군은 여지없이 무찔러버리겠다는 왕성한 공격정신이 넘쳐흐르고 있지 아니한가. 이리하여 무산중위의 장렬한 전사는 대동아성전 사상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가한 것이어서 2천4백만의 붉은 피를 뒤끓게 하였던 것이다.

〈출전 : 金中源, 「支那事變後 朝鮮人武勳譚」, 『春秋』 第3卷 3號, 1942년 3월, 49~55쪽〉

11) 원문에는 파간바루라고 표기됨.
12) 팔렘방으로 보임.

5. 김활란(金活蘭)

1) 필승태세 하의 반도국민에게 –위대한 세대의 인도자

이화여전교장(梨花女專校長) 천성활란(天城活蘭)[13]

대전(大戰)하의 반도학도에게

우리는 이제야 우리의 나아갈 바 할 바를 찾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8일 선전포고의 조서(詔書)를 봉대(奉戴)했을 때 반도 2천 4백만의 민중은 한결같이 용솟음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스럽고 위대한 세대에 황국신민으로 생(生)을 받게 된 것을 마음껏 감사할 것이며 우리 후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잠자고 있는 우리 반도의 민중을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생활로 인도함은 오로지 우리 반도학도들의 어깨에 메어잇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을 확립하고 더욱 더욱 자중 긴장하여 언제나 앞서서 국가를 위하여 봉임(奉任)하는 데 으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도록 합시다. 우리는 한동안 지네들의 물질생활의 번화함과 안이(安易)함에 눈이 어두워 그러한 것만 부러워하고 숭배한 나머지 제나라를 귀히 여기고 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잊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인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알고 세계에 비할 때 없는 그 정신 '대화혼(大和魂)'을 뿌리 속까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그 귀한 정신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황국신민으로 다 같이 천황폐하의 적자가 된 우리는 무섭고 불덩이 같은 그 혼을 그대로 체험해 봅시다. 헛된 비평에 시간을 보내며 빈정빈정 남의 눈치만 피하여 다닐 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당파를 좋아하고 시비와 비평에 날을 보개며 먼저 할 일에 느슨하였습니다. 과거 우리의 이러한 실수를 다시 되풀이한 만큼 우리는 어리석지 않을 것입니다.

학도들이여! 우리는 첫째로 실행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결의를 보여줍시다. 사태를 정시함으로써 참된 황국신민의 행복을 누려봅시다.

〈출전 : 天城活蘭, 「必勝態勢下의 半島國民에게－偉大한 世代의 引導者」, 『半島の光』 第51號, 1942년 2월, 9쪽〉

13) 김활란(金活蘭)의 창씨명.

6. 문명기(文明琦)

1) 『(진정한 세계평화로) 소지일격(所志一擊)』(1937)

시작하며

내가 이 천박한 책을 간행하는 데 있어서 아래의 각위(各位)가 특별히 표지 글을 써 주시고 서문 및 발문을 보내주신 것은 나의 영광이자 큰 감격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표지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각하
동　해군 대장 오스미 미네오(大角岑生) 각하
동　육군 대장 가와시마 요시유키(川島義之) 각하
동　조선군사령관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각하
동　육군 소장 가타야마리이치로(片山理一郎) 각하
서문　경상북도지사 가미타키 모토이(上瀧基)
동　보병 제5여단장 가타야마 리이치로 각하
발문　영덕 군수 권영세(權寧世) 씨

서문

문명기 군은 나의 오랜 지인이다. 이 책을 읽는 각위는 이미 동 군의 인품이나 오늘날까지의 사적(事績)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사족을 덧붙이는 일은 피하고 싶다. 다만 동 군이 일본인으로서의 기쁨에 불타고 어떻게 해서든 국은(國恩)에 보답하려는 그 염원이 결실을 맺어 문명광산의 개발이 되었고 동 군의 희망대로 이 산을 처분해서 얻은 12만 엔으로 육해군에 각 1대의 비행기를 헌납했다는 것만은 언급해 두기로 한다. 이 사실은 내가 광산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관계상 그 상세한 사정을 숙지하고 있다.

일본인으로서 일본인이 된 기쁨에 취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넓은 사회에는 이 당연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로는 일본인이라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사람이나 적어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일본 내지에서 태어난 순수 야마토민족(大和民族)[14]이면서 이러한 자들이 있는 오늘날, 우리 경북에 거주하는 저자가 일본인이 된 기쁨에 불타고 그 기쁨을 말하고 표현하고자 비행기를 헌납해 국방사상을 선전하고, 이세황대신궁(伊勢皇大神宮)의 대마(大麻)[15] 반포에 정진하고 있음은 우리 경북의 자랑인 동시에 널리 내지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사안이다.

14) 일본민족.
15) 이세신궁 등에서 받는 신부(神符). 부적의 일종임.

우리 일본인, 이 책에 의해 더욱 일본인이 된 기쁨을 맛보고 일본 내지에 있든 조선에 있든 간에 모두 함께 협심하고 노력해서 크게 국운의 발전에 봉공하는 정성을 다하길 바란다.

1937년 봄

경상북도지사 가미타키 모토이

서문

애국의 용사 문명기 씨와 서로 알게 된 것은 내가 대구 보병 제80연대장으로 봉직할 때였는데, 이후 친교를 쌓으면서 그의 언행이 진정 애국의 지정(至情)으로 약동함을 느꼈다. 특히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 창설의 중심인물로서 그의 희생적 활약을 보게 되면서 더욱 그 느낌이 깊어지고 경탄하고 있다.

그는 올해 정월에 이세대묘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누추한 집을 방문해 『소지일격』을 보여주면서 책 표지의 제목을 써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 나보다는 다른 적당한 사람이 다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의 간절한 희망과 그와의 오랜 관계로 결국 주제넘게 감히 그의 부탁에 응하게 되었다.

『소지일격』을 일독해 보니 매우 평이하고 간결하게 우리 국체의 특징 및 정화 등을 서술하고 여기에 그의 독특한 애국의 정열이 넘쳐나고 있었다. 특히 진정 세계평화의 실현에 관해 그가 품고 있는 이상은 곧 진무(神武)천황 건국의 조칙(詔勅)에서 말하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의 구현이자 내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이 고원(高遠)한 대 이상의 실현은 황국의 대 사명이자 거국일치해서 이 큰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바에 황국의 약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동포－특히 '반도 동포'[16]의 일독을 추천해마지 않는 바이다. 짧은 한마디로 서문을 마친다.

황기 2597년 기원가절(紀元佳節)

보병 제5여단장

육군소장 가타야마 리이치로

자서(自序)

비상시 일본을 극복하는 지도정신은 신국(神國) 일본을 자랑하는 황도(皇道)의 선포이고, 모든 국책은 이 지도정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만주사변에 이어서 만주제국이 출현했고, 나아가 국제연맹의 탈퇴, 런던 군축회의의 탈퇴 등 미증유의 국제적 위기에 직면해서 일본제국은 결연히 영광스러운 고립을 자랑해왔는데, 그 이래로 대능위(大稜威)에 의해 일본민족의 위대한 존재가 여실히 입증되었고, 서정일신(庶政一新)의 기표(旗標)를 정면에서 높이 흔들며 제국정부는 동아의 유일한 안정된 세력으로 나서서 시종일관 자주적 적극 외교를 하여 작년 11월 일·독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제국의 외교는 급선회를 시도, 일·영 동맹 폐기 후 오로지 기회주의적인 정책으로 떨어진 추수(追隨)외교를 청산하고 명확한 목표 아래 자주적 외교 건설과 적극적 대륙경영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

16) 조선인.

다. 그 외교적 목표는 서부국경의 압력으로 극동적군(赤軍)의 위협 제거를 기도하는 것으로, 대륙정책에 백척간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일본제국이 걸어온 최근 외교 경과를 검토해 본다면, 1936년 1월 15일 군축회의를 탈퇴하고 제국의 소신을 내외에 당당히 밝혔으며 국민은 하나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소생의 생각을 깊이하고 일본은 회의에 임하기를 시종일관 불위협 · 불침략의 사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공평하고 평등을 기조로 한 우리 의견은 비율 불평등을 고집하는 구미 각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끝내 탈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태평양의 방비제한도 작년 말을 기해 철폐되었고 드디어 무조약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일본은 군축의 유무와 상관없이 불위협 · 불침략의 정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더욱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매진하고 이에 공헌하려는 의지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일본의 기치는 매우 선명했다. 밝게 빛나는 해와 달과 함께 분명하다. 돌이켜 보면 일본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유럽대전으로 인해 또렷이 전쟁의 참화를 보고 전율을 금할 수 없었던 세계 각 국은 다시 이러한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예기치 못하게 평화운동에 착수, 이 운동은 순식간에 발흥하면서 팽배해져 세계 구석구석까지 넘쳐났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1921년 군비제한 문제가 기세를 떨치고 그해 11월 미국은 워싱턴에 일본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4개국을 초대해 군축 5개국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일본은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기탄없이 말하자면 이 회의는 일본의 실권회의였다. 그야말로 일본은 잃은 것만 많았을 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즉 영국 ·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 눌려 5 · 5 · 3의 비율을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까지 언급되어 산둥(山東) 문제에 관해서는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일 · 영 동맹의 폐기에 따라 동양의 번견(番犬)으로부터 해제된 일이다. 일본은 일찍이 국제평화의 증진을 염원하고 인류의 안녕복지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위해 늘 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굴했고, 굽히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굽히면서 오로지 타협을 사용해온 예가 적지 않다. 이 회의에서도 일본은 극동의 평화—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기에 도리어 이 굴욕을 감수한 것이다. 군축의 협정은 국민부담의 경감, 국제평화의 증진 등 기타 수많은 공헌을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국가 국방의 위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은인지구(隱忍持久)하면서 능히 국력을 함양한 일본은 16년 동안이나 영 · 미로부터 붙잡혀 있던 비율 불평등이라는 쇠사슬을 비로소 벗어던지고 겨우 질식에서 벗어난 꼴이다. 바야흐로 각 국은 표면을 호도하고 군축확장시대에 들어서서 예리하고 은밀하게 서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굳이 일본은 이를 흉내 내며 함부로 군비를 확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으로서는 건국의 대의에 비추어 해양제국으로서의 사명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국제관계의 추이에 적절이 대처하면서 거국일치로 국위의 발양을 기하고, 동양의 맹주로서 동양평화에 대한 중책에 떠맡고 세계의 평화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비상시이다. 만주사변 당시만 비상시가 아니다. 비상시라는 말에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 온 나라가 분기해야 할 때이다.

나는 재작년 이 국제위기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징병의무가 없는 조선 동포로서 미력하나마 육해군에 1대씩 비행기를 헌납하고 아울러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를 조직할 것을 제창하고 그 충실에 대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국방의 충실은 국가의 안전판이며, 나의 본래의 뜻(素志)은 세계평화의 확립에 있다. 내가 큰 목소리로 호소하고 싶은 점은 '진정한 평화'의 확립이

다. 어떻게 진정한 평화의 확립을 바랄 것인가. 내가 이 빈약한 소책자를 공간하는 까닭은 우리 동포에 대해서는 황조(皇祖)의 신칙(神勅)을 항상 머리에 새기고 일본국민으로서의 국시와 사명을 자각하는 것을 촉진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황도(皇道) 일본정신을 철저히 주지시킴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생기는 까닭을 역설하고 싶기 때문이다.

1937년 봄
영덕(盈德) 오십천(五十川) 반운암(畔雲岩) 서재에서
문명기(文明琦) 씀

목차

제1 서언
반세기의 세계의 변천 / 흥망성쇠 / 단축된 세계 / 일본과 조선 고대 한 언어의 나라 / 건국 3000년의 사명 / 행복한 백성 / 60세의 노인이 아니라 27세의 청년 / 세계의 사람들을 위하여
제2 대묘(大廟)에 참배하여
이세대묘에 / 여관 모두 만원 / 장려한 세단제(歲旦祭) / 숙연하게 옷깃을 여미다 / 기특한 노부부 / 황조의 여덕 / 황실과 인신(人臣) / 밝게 빛나는 광휘는 천고불식
제3 약진으로의 도정
약진 4단계 / 일본은 과연 침략주의인가 / 평화애호의 민족 / 일청전쟁의 원인 / 일본기질의 인식 부족 / 조야 하나가 되다 / 전첩의 결과 /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 질투와 반감 / 카이저의 황화론
제4 와신상담으로
전첩의 기쁨도 한순간 / 3국간섭 / 국민 비분의 눈물 / 러시아의 야망 / 한반도로 / 일·러의 상의 / 기만에 놀아나다 / 인내심의 한계에 달하다 / 건국 미증유의 대사건 / 바다에 육지에 연전연승 / 일본군의 도의적 요소 / 특이한 일본의 국민성
제5 일·한의 병합
일한병합의 대조 / 일한협정서야말로 / 통감부 신설 / 데라우치 제3대 통감에 의해 / 일시동인의 덕정 / 시정 25주년의 축하 / 영아가 장년으로 / 안심하지 말라 / 3000년의 역사
제6 일본과 조선과
묘향산의 위인 / 단군의 명망 / 왕검에서 태백산으로 / 단군은 이소타케루노 미코토(五十猛命) / 소시모리(曾尸茂梨)와 우두산 / 동족동친(同族同親)의 나라 / 신흥 신라왕의 조(祖) / 큰 알을 둘러싼 전설 / 박혁거세는 이나히노 미코토(稲氷の命)인가 / 영일만의 전설 / 건설된 낙토 조선
제7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위업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본 / 청천벽력 / 어두운 구름이 일본 전체를 뒤덮다 / 신자적성(臣子赤誠) / 신명의 보살핌과 가호도 허무하게 / 기억하라 7월 30일 / 메이지대제의 위업 / 영국 신문의 동정 / 노기(乃木) 대장 부부의 순직 / 천고불후의 대 비사

제8 세계대전의 재앙

로쿠메이칸(鹿鳴館) 시대의 추억 / 경멸에서 존경으로 / 공포의 전율 / 황화의 목소리와 배일의 외침 / 정신적 팽창에 노력 / 정의의 큰 깃발을 휘날리며 / 유럽 전체가 순식간에 불구덩이가 되다 / 각국의 손해와 거액의 전비 / 일·독 개전 / 칭다오를 공략 / 유럽에서 황군 파견 간청 / 남양에 휘날리는 일장기 / 제국군함 지중해에서 활약 / 남양의 위임통치

제9 시베리아 출병사건

출병의 목적 / 체코 군의 구원 / 러시아인 아귀도에 빠지다 / 혁명전쟁 발발 / 허망한 로마노프왕조 / 과격파 군의 권토중래 / 반대의 결과로 / 미군 먼저 철퇴 / 주둔 중의 비극 /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 항구의 학살사건 / 출병의 총결산

제10 5·5·3의 굴레

세계대전 종식 / 강화회의의 부산물 / 국제연맹 규약 / 인종평등주의 / 일본의 주장 일축되다 / 연맹의 불합리는 첫 걸음부터 / 평화운동에서 군축회의로 / 워싱턴 회의 / 영·미의 압박 / 비율 불평등의 강요 / 여기에도 불합리

제11 만주사변까지

일본의 실권 / 3국간섭사건이란 / 일본의 국력 / 중국의 악의적 외교 / 다사다난한 일본 / 인심의 피폐 극에 달하다 / 정당의 피폐 / 누란의 위기에 / 퇴영외교의 숭상 / 폭군 장쉐량(張學良) / 회일(晦日) 배일(排日)은 나날이 커지다 / 만주사변 발발 / 만몽 없이는 국군 없고, 황군 없이는 만몽 없다 / 일본민족의 사기 오르다

제12 자주적 외교로

학문쇠퇴와 악업의 대가 / 만몽 민중의 자각 / 만주국 탄생하다 / 왕도낙토의 건설 / 중국 측의 악선전 / 인식부족의 연맹 / 리턴 경의 맹단(盲斷) / 퇴영외교를 일척(一擲) / 당당한 일본의 논전 / 42대1 / 명예로운 고립 / 황도 일본의 국시

제13 부국강병의 표징

경종에서 깨어나 / 정신적으로 부활 / 세계 곳곳으로 / 일본 상품의 진출 / 무역분쟁 / 세계의 공도를 닦아라 / 일본인·조선인의 굳은 악수 / 해 뜨는 일본의 모습 / 비행기 헌납의 신념 / 눈물겨운 헌납 이어지다 / 백록광산에서 금두꺼비 나타나다 / 목욕재계 하고 / 가납(嘉納)의 영광 / 품은 뜻의 관철로

제14 후지산과 벚꽃

후지의 위용과 매력 / 일본 국민성의 표징 / 공도 전혀 흔들림 없이 / 충용열렬한 사람들 / 연극을 보고 / 국민성의 장점 / 주옥의 미광을 닦아라 / 인애의 손을 널리 뻗쳐

결론 진정한 세계평화로

국기와 국화의 문장 / 대양과 같이 / 황실을 중심으로 / 충효일치 / 동화력과 조화력 / 군축회의 탈퇴 / 군비확장시대 오다 / 개인주의를 배격 / 일본이 걸어가야 할 길 / 간두(竿頭) 첫 걸음을 내딛고 / 고매한 이상 아래 / 나의 제창

부록

제1 서언

지금은 비록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동해안의 일각인 영덕에 거주하고 있지만, 나는 원래 평안남도 안주에서 큰소리치며 살던 사람으로 올해 60세의 청년이다.

한마디로 60세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60년은 한 세기의 절반 이상이다. 그 반세기 동안 나 개인으로서도 여러 변천을 했지만, 세상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동안 세계의 상황이 얼마나 크게 변했던가. 동양의 지도 색깔도 바뀌었고 서양의 지도 색깔도 바뀌었다. 세계의 강웅(强雄)으로 간주되던 러시아제국 및 독일제국은 유럽대전과 더불어 파괴되었고, 그렇게도 호사를 자랑하던 로마노프조(朝)도 근화일조(槿花一朝)의 꿈이 되고, 1대(一代)의 효웅(梟雄) 카이저는 네덜란드의 아멜롱에게 비운낙백(悲運落魄)의 몸을 의지했다. 또한 애신각라(愛新覺羅)[17] 씨의 청국황실도 하루아침에 붕괴하고 중화민국이 생기더니 그 중화민국에서 만몽(滿蒙) 3만 민중의 총의로 만주국이 독립, 선통제(宣統帝)였던 푸이(溥儀) 씨를 집정으로 맞이하고, 이어서 황제로 추대해 왕도낙토(王道樂土)의 건설이라는 대 이상 아래 착실히 보무를 걸어가고 있다.

기타 혁명에 이은 혁명을 하는 나라도 있다. 또 문명의 이기가 발달함에 따라 세계는 크게 단축되었다. 최근 비행기의 진보 발달은 현저하고 오늘 아침 도쿄(東京)에서 아침을 먹은 자가 저녁에는 신징(新京)에서 만찬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윽고 아침에 일본에 있던 자가 그날 저녁에는 파리나 런던에서 객몽(客夢)을 꾸게 될 것이다. 아니 그 뿐만 아니라 간단한 비행기로 각자 개별적으로 마음껏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출현할 것이다. 또 전화의 진보도 현저해서 곧바로 세계 각 국에 연락이 되어 그날 아침 일어난 사건은 그날 정오에는 벌써 세계 곳곳에 전해진다.

1910년 8월 조선은 일본과 합병했다. 천운순환(天運循環) 일본과 조선은 태고에는 선조가 같은 민족이고 역사상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대 양국의 언어는 큰 차이가 없는 거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였다. 스사노오노 미코토(素戔嗚尊)[18]가 부보(浮寶)를 타고 일본해를 왕환(往還)하시던 당시에는 일본과 조선은 완전히 일가(一家)나 마찬가지였다. 그 이래로 별이 이동하고 사물이 바뀌면서 일본과 조선은 두 나라로 분립했지만, 이는 본가와 분가와 같은 것이어서 일 · 한의 병합이야말로 본가와 분가가 합병함으로써 옛날로 돌아간 것이다. 이로써 조선인은 비로소 합당한 직분을 갖게 된 것이고, 이는 본가의 경사이기도 하고 또 분가의 경사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 내지인과 조선인 두 민족은 서로 악수 · 제휴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더욱 공고해지고 현재와 장래를 향해 우리 국위를 빛내는 동시에 건국 3000년의 사명의 대의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충군애국의 정신은 국가의 역사에 정통(精通)하는 데 있다.

재작년 가을 시정(施政) 25주년의 기쁜 날을 맞이해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덕정(德政)을 구가하는 동시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적 국민으로서 천하흥망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장래의 약진에 대하여 작으나마 품은 뜻(所志)의 일단을 말하고자 한다. 어쨌거나 건국 3000년, 금구무결(金甌無缺)의 국체로 세계평화 위에 초월해서 혁혁히 빛나는 역사의 자취를 갖고 있고 흥폐존망을 벗어난 곳에 탁립(卓立)해

17) 원문에는 애친각라(愛親覺羅)라고 되어 있는데, 친(親)은 신(新)의 오식으로 보임.
18)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신.

온 명예로운 우리 일본민족으로서 생을 이 세상에서 얻고 세계의 화려한 무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우리는 진정 행복한 민족이다.

일찍이 고 이와야 사자나미산진(巖谷小波山人)[19]이 큰소리로 외치며 말하길 "벚꽃 피는 일본에 태어난 남아로구나"라고 했는데, 일본남아 중에서 이런 느낌을 품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나는 앞서 60세라고 고백했는데, 결코 60세의 노인은 아니다. 나는 일·한 병합과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이며 시정 27년인 오늘날 27세의 청년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그런 패기로 가업에 힘쓰고 미력하나마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 힘쓸 생각이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면서 적성(赤誠)으로 국은(國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결의이다.

제2 대묘(大廟)에 참배하여

1935년 정월 초하루 나는 후타미가우라(二見浦)에서 첫날을 맞이했다. 지난 29일 조선을 출발해서 31일 이세(伊勢)의 야마다(山田)에 도착했다. 거리는 마치 짠 것처럼 모든 여관이 만원이었다. 이러한 여행객들은 가까운 곳에서는 물론이고 멀리 홋카이도(北海道)·조선·대만·만주에서 일부러 대묘에 참배할 목적으로 모인 것이다. 모두 대묘에서 엄숙하게 거행되는 세단제(歲旦祭)에 참가해서 천황폐하의 성은과 황종(皇宗)의 무궁을 기원한다. 세계 어떤 나라에 이와 같이 충량한 국민이 있겠는가.

세단제는 미명(未明)부터 시작되었다. 신로산(神路山)의 늙은 삼나무는 만고의 깊은 신록을 간직하고 이스즈가와(五十鈴川) 강의 청류는 언제가지나 천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신원(神苑)은 푸른 이끼로 부드럽고 송뢰(松籟)소리는 신비롭고 화톳불 아래 수만의 군중은 조용히 소리도 없이, 다만 들리는 것은 박수소리와 신관(神官)이 축사를 말하는 소리가 있을 뿐이었다. 만상(萬象)이 입을 다물고 밤이슬의 차가운 기운이 의연하게 만들어 자연스레 옷깃을 가다듬게 했다. 군(君)을 기원하고 나라를 기원하는 동시에 작은 자신의 일신의 기원에도 역시 신을 잊지 않는 일본의 국민이다. 국민의 경신(敬神)의 마음이 도타운 것은 결코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건국 3000년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며,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가 계신 곳, 영원히 신령한 이 나라를 보시고 엄연한 신위(神威)와 신덕(神德)은 골고루 사해를 비추시기 때문이다. 나는 엄숙한 공기에 잠기면서 몸과 영혼 모두 깨끗이 씻긴 듯 상쾌한 기분이 되었고, 아울러 애국비행기 100대 헌납 달성의 기원제를 장엄하게 거행한 뒤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는 손님으로 큰 혼잡을 빚었다. 아침을 먹은 뒤 복도에 나가자 옆방 노인과 마주쳤다. 노인은 멀리 도쿄(東京)에서 부인과 함께 참배하러 온 것인데, 1902년 이래로 아직 한 번도 세단제 참가를 빠트린 적이 없다고 한다.

나는 오늘 세단제의 삼엄함을 말하고 거기에 참석할 수 있었던 영광을 말하자 노인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내가 조선 출신임을 알고는 나를 자신의 방에 초대해 다과를 베풀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19)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1870~1933) : 아동문학가. 본명은 이와야 스에오(季雄), 또 다른 호로 사자나미산진(漣山人).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는 황실의 선조이고 또 우리 선조이시다. 세계만방의 흥폐존망 · 성쇠소장(盛衰消長)과는 무관하게 우리 제국만 탁연(卓然)하게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을 봉대하고 일찍이 한 번도 이 나라를 욕보이게 한 일이 없음은 오로지 황조(皇祖)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의 여덕(餘德)이다. 역대 천황은 황조황실의 생명의 연장이며, 우리는 건국 이래 충근(忠勤)을 다하는 선조의 연장이다. 다행다망한 신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태와 발전을 기원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신위(神威)를 경앙(敬仰)하는 일은 우리가 최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내가 아내와 함께 참배하러 오는 것도 무한한 은총을 감사하는 미충(微衷)에 다름 아니다.

황조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의 신칙(神勅)에,

"갈대가 무성한 들판에서 가을이 되면 벼 이삭이 많이 열리는 땅[20]은 내 자손이 왕이 될 나라이다. 그대, 황손이 가서 다스려야 할 것이다. 힘차게 가라. 태양신의 보조(寶祚)[21]를 잇는 자가 번영하리라는 것, 천지와 함께 무궁하리라."

라며 황통(皇統)의 무궁, 보조의 장구, 일본국민의 분의(分義)는 이미 창조 당시부터 정해져 있었다. 중세에 종종 변란을 겪고 정강(政綱)의 통일이 느슨해지는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명(大命)[22]유신, 황운이 융흥하여 메이지대제(明治大帝)께서 성조(聖詔)를 환발(渙發)하여 입헌의 대계획을 선언하시어 상원수(上元首)의 대권을 관할하시고, 수족이 되어 일하는 가신들의 힘을 발전시켜 대신(大臣)의 보필과 의회의 익찬(翼贊)에 의해 각 기관에 맡은 바 소임을 주고, 아울러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더욱 그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모두 조종(祖宗)의 유업(遺業)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을 명기해 세간에 유포하는 것이다.

나는 노인의 말을 경건하게 경청했다. 그렇다, 우리나라 통치의 주체인 황위와 그 용체(容體)인 국토 및 인신(人臣)은 외국의 그것과 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즉 황위와 국군(國君)[23]은 국토 및 인신의 본원이며, 국토 및 인신은 항상 황위와 국군에 포합일체(抱合一體)한 뒤 적자(赤子)의 부모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없는 적자는 없고 황실을 떠나서 민족은 없다는 것, 우리 일본 같은 곳은 곧 만방에 탁절(卓絕)하고 세계에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이며, 그리고 그 근원에는 이세대묘(伊勢大廟)에 계시는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로부터 배태된다는 것을 건앙(虔仰)해야 할 것이고, 밝게 빛나는 광휘는 그야말로 천고불식(千古不熄)이다.

제3 약진으로의 도정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의 발흥과 약진은 현저하고 특히 최근의 신장 모습은 눈부신 것이다. 오늘날 일본이 국운의 큰 발흥을 보기에 이르기까지는 대개 4단계를 밟고 있다. 즉 일청전쟁과 일러전쟁, 유럽대전 참가와 만주사변이다.

혹자는 말한다. 일본은 침략주의라고. 또 혹자는 일본국민은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한다. 과연 일본

20) 여기서는 현대어로 번역하긴 했으나 '도요아시하라노 지이호아키노 미즈호쿠니(豊葦原の千五百秋の瑞穗國)'는 일반적으로 국명, 즉 일본을 가리킴.

21) 황통. 황위.

22) 천황의 명령.

23) 군주, 곧 천황.

은 침략주의일까. 또 일본국민은 호전적인 민족일까.

일본은 그야말로 늘 이기는 나라다. 백전백승, 나아가는 길에 적이 없고 아직 한 번도 패배의 참혹한 맛을 보지 않았다. 게다가 그 어떤 전쟁도 일본이 먼저 나선 적이 있었던가. 아니다! 아니다! 일본은 언제나 다른 것에서 강제를 받아도 항상 이를 회피했다. 일본은 늘 평화를 사랑하고 있다. 그야말로 일본국민은 호전국민이 아니라 평화애호의 민족이다. 일청전쟁을 보라, 일러전쟁을 보라. 또 유럽대전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더냐. 만주사변에 출동한 까닭이 무엇이더냐.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청전쟁의 원인은 바로 오만한 청국이 일본을 경멸하면서 도전했기 때문이다. 즉 1894년 5월, 한국 내에 동학당이 봉기했다. 1878년 이래 일본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구축한 청국은 동학당의 변이 일어나자 한국의 보안을 명목으로 출병을 개시했다. 그 무렵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시대였다. 내각 대 재야 정당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와중에 의회는 해산에 해산을 거듭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청국은 일본의 상황을 보고 어차피 외부 일에 손을 쓸 여유는 없다고 깔보고 이때 일거에 한국을 자신들이 장악하려고 계획했다. 당시 일본의 생명선은 한국이었다. 생명선을 위협받고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일본은 청국의 출병을 듣자 곧바로 내부 다툼을 없던 일로 하고 조야가 하나로 뭉쳐 이에 대처하기로 했다. 육해군은 곧바로 무장했다. 육군은 명령이 떨어지자 순식간에 혼성여단을 편성해서 한국에 파견했다. 청국은 일본이 유사시에 일제히 힘을 합쳐 외부에 대처하는 일본기질을 간파하지 못했다. 모든 실패는 인식부족에서 출발한다. 이리하여 일청전쟁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전첩(戰捷)은 일본의 세계에 있어서의 위치를 일변시켰다. 전전(戰前) 세계가 일본을 보기를, 일본은 훨씬 청국 이하의 야만국으로 보고 전쟁 당초에 "청국 병사가 나가사키에 상륙하면 일본의 정복은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인 대부분은 일본인을 중국인 아래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전승 결과는 어떤가. 세계가 일본을 보는 눈은 완전히 일변했다.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들의 눈은 손바닥 뒤집듯이 표변하고 "유럽은 분명히 일본을 오해했다. 일본인은 유럽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유럽을 소화했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인식부족을 정정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열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그 위치를 현저히 향상시켰다.

혁혁한 전첩은 서서히 세계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아득히 먼 동쪽 끝자락의 섬나라는 일약 세계열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시아의 일개 소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동양의 최대 강국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을 질투하는 눈 또한 빛나기 시작했다. 반감도 퍼졌다. 독일황제 카이저가 황화론(黃禍論)을 외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기회만 있으면 머리를 들려고 하는 일본을 더 늦기 전에 호되게 치기 위해 은밀히 팔을 억누르는 나라도 있었다.

제4 와신상담으로

일러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전쟁의 원인을 탐구하면 얼마나 일본이 평화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전쟁을 회피했는지, 일본국민이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라는 증거를 명확하다.

일청전쟁에서 일본은 청국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마침내 그들을 군문(軍門)에서 내렸다. 강화담판의

결과 청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게 했고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에 할양케 했으며, 또 상금 2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 전첩에 도취한 일본국민은 이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다. 당사자끼리 강화조약을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라며 일본을 공갈했다. 일본은 완전히 불의의 일격을 받고는 경악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삼국간섭 사건이다.

이 무법한 간섭에 일본국민은 경악하는 동시에 격노했다. 그러나 슬프도다. 2년에 걸친 전쟁으로 일본은 피폐했고 러시아 · 독일 · 프랑스 3국을 상대로 싸울 여력은 없었다. 이 무법하기 그지없는 간섭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1895년 5월 14일 요동반도 반환 조칙이 환발되었다. 국민들은 남녀노소 모두 분노의 눈물을 삼켰다. 군비가 부족한 나라의 참혹함이로다. 일본은 이리하여 와신상담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러시아는 아직 혀에 침도 마르기 전에 갑자기 우리가 반환한 요동반도 및 만주 일대의 토지를 영유하고 나아가 한국으로 향해서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이미 그 세력은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를 석권하려고 했다. 용암포는 이미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조선 남쪽 제일의 항구 진해까지 병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일본은 러시아와 상의(商議)를 거듭해 극동 평화를 위해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굴복하고, 굽히지 않아도 되는데도 굽히면서 오로지 타협을 했지만, 저들은 기만과 농락으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만주 철병을 선언하면서도 자신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감히 이를 실행하지 않고 도리어 여순항에 반영구적인 요새를 축조해 만주의 군비확장에 급급해 하면서 만주와 한국 영유의 야망을 수행하기 위해 예리한 손톱을 세워 다가왔다. 일본의 생명선은 한국이다. 러시아가 만주를 영유하는 결과는 한국의 보전은 기대할 수 없고 한국을 한 번 지키지 못한다면 극동의 평화는 애당초 바랄 수도 없다. 즉 러시아가 만주를 영유하고 러시아가 한국을 영유하는 것은 일본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문제는 한국문제이자 한국문제는 곧 일본의 생사존망이 달린 중대 문제이다. 이미 칼을 들고 일본에 다가선다. 언제까지 은인지구(隱忍持久)할 것인가. 일본국민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은 이상 과감히 일어나 이에 대항해야 한다. 울적한 일본국민의 의분은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 1904년 2월 11일 러시아에 대한 선전 대조(大詔)는 환발되었다. 건국 미증유의 대사건이다. 일본은 순식간에 무장했다. 국민은 모두 용감히 일어나 죽음으로 군은(君恩)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그 의열(義烈)한 영혼은 아침햇살 속에서 향을 내는 벚꽃과 같고 충성의 마음은 응고되어 백련(百鍊)의 철과 같이 빛나고 곳곳에서 일본국민은 그 특이한 국민성을 발휘했다.

전쟁의 막은 올랐다. 바다와 육지에서 연전연승, 그렇게도 세계 제일의 육군국으로서 자타 공히 인정하고 있던 러시아도 패전 또 패전, 싸울 때마다 엄청난 포로와 무기를 아낌없이 일본군에게 제공했다. 러시아의 상하는 패전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전율했다. 세계 각 국도 일본의 첩보(捷報)를 들을 때마다 새삼 경각했다. 당시 러시아의 무기는 정예의 최신식이었고 일본의 무기는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일본군이 가는 곳, 질풍의 고엽(枯葉)을 뿌리는 느낌이었고 러시아 군은 그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고는 퇴각에 퇴각을 거듭했다.

어째서 일본군은 그리도 강했을까? 열국은 하나같이 경이롭다는 듯 눈을 크게 뜨는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부심했다. 당시 형안(炯眼)을 갖고 있던 런던타임스의 한 기자는 도의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 정강(精强)한 까닭을 역설했다.

그러한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며, 일본의 백전백승은 우리 만세일계의 황실이 우리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종교적 신성과 존엄을 지닌 일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며, 폐하를 위해……라고 웃으며 사지로 가는 일본국민의 정신이야말로 건국 3000년 전통의 특이한 국민성이기 때문이다.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세(伊勢)에 모여 대묘에 참배하고 군을 기원하고 나라를 기원하는 국민이기에 비로소 백전백승의 영광을 입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대일본제국은 황실을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다. 야마토민족(大和民族)[24]이 있어서 황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황실이 있어서 야마토민족이 있다. 우리 황실의 무한한 존영(尊榮)과 무량한 경애의 초점의 소이(所以)는 황실이 우리 민족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국체가 세계에 비할 바 없는 까닭이다.

나아가 일본군이 강한 까닭은 서양의 문물을 수입해서 이를 완전히 소화하고 우리 일본문화를 창조하는 위대한 국민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각종 우리 병기는 곧바로 받아들여 선진국 이상의 정교한 것으로 만들고, 해국(海國) 일본을 자랑하고 의학 일본을 선양하는 것 외에, 오는 신문명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서양 물질문명을 폐기하고 반드시 그 기조에 동양문명의 심원한 정신문명을 포함하는 극동의 일본문명에서 출발하리라 기대되고, 산업과 무역에 신흥 일본의 진전은 특히 경이롭다고 할 만한 것이다.

제5 일 · 한의 병합

메이지대제(明治大帝)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 제국의 안전을 장래에 보장하기 위해 늘 한국이 화란(禍亂)의 연원임을 얼마나 진념(軫念)하셨는지는 1910년 8월 29일 환발된 일한병합의 대조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한국과 중요한 협상을 체결하고 1904년 2월 일한협정서를 작성했다. 이 일한협정서야말로 일 · 한 양국 관계의 추이의 출발점이다. 이어서 1905년 일 · 러 양국 간에 포츠머스강화조약 체결 당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적 ·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월등한 이익을 갖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 보호 및 감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를 저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승인했다. 한편 그 가을 일 · 영 양국 간에도 일 · 영 동맹 약관에 따라 이와 동일한 권리를 승인했기 때문에 일본은 1906년 한국통감부를 새로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 공을 통감으로 임명, 이후 한국 정부는 시정의 개선에 관해서는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방에는 사전에 통감의 동의를 받을 것, 통감의 추천으로 일본인을 한국 정부에 임용할 것 등을 정하고, 일본의 보호행정 행사의 범위를 확장했다. 그 뒤 이토 통감이 사임하고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 자작 제2대 통감이 취임하면서 일한병합의 기운이 일어났고 제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백작은 더욱 그 기운을 성숙시켜 한국 총리대신 이완용 씨와 일한병합조약을 체결, 1910년 8월 29일로 이를 공포하고 시행했다. 이어서 10월 1일 총독부 본부 및 소속서 관제를 시행했다.

24) 일본민족.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 이래 역대 총독은 항상 병합의 대조를 봉대하고 공명정대한 정치를 시행했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편익과 민의 창달을 도모하고 조선인의 임용 대우에 관해서 깊이 고려한 뒤 각자 맡은 바 소임을 갖게 하였으며, 아울러 제반 행정을 쇄신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박차를 가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 이래 춘풍추우(春風秋雨) 27여 년, 조선의 민중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덕정 아래 더욱 행복을 증진시키고 산업 및 무역은 더욱 현저한 발달을 이루고 문운(文運)이 융성해져 오늘의 성사(盛事)에 도달한 것이다. 마땅한 일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5년 10월 1일로 시정 25주년의 축하회를 개최하고 또 각 도·부·군·읍의 반도 방방곡곡에 국기를 게양하고 의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조선 전체가 일제히 그 덕정을 구가(謳歌)하며 이 날을 축복했다. 일한병합 이후 실로 27여 년이 지난 영아는 벌써 27세의 장년이 되었다. 27년이라는 세월을 되돌아보고 또 빛나는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양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소질을 기르는 일에 노력하고 더욱 국위를 빛내야 할 것이다. 한가로이 있을 시대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조선은 일조일석의 관계가 아니다. 원래는 하나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이다. 나는 이를 기회로 3000년의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제6 일본과 조선과

조선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옛날, 지금의 조선의 서북방, 평안남도의 태백산, 지금은 묘향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산에 한 사람의 위인이 나타났다. 그 위인은 항상 태백산맥 봉우리에 무성히 자라는 박달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위인을 언제부턴가 단군(檀君)이라고 불렀다. 위인의 이름은 왕검(王儉)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가명인 단군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단군은 국민을 통치하는 동시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부르고 도읍지를 지금의 평양에 정해 성을 쌓아 자신의 이름이었던 왕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새로운 성의 이름으로 정했다. 그 뒤 단군은 태백산에 황거(皇居)를 옮겼다가 지금의 황해도 서쪽 아사달산으로 옮겨 거기서 천수를 누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단군이 바로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의 동생 스사노오노 미코토(素戔嗚尊)의 아들, 이소타케루노 미코토(五十猛の命)이시라고 일본 고대전설사에도 있고 또한 신대사(神代史) 연구자들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일본 신대의 전설에 스사노오노 미코토가 그의 아들 이소타케루노 미코토를 데리고 일본해를 건너 조선의 동해안에 상륙해 지금의 강원도 춘천 부근 소시모리(曾尸茂梨)라는 곳에 잠시 발을 머물렀다는 전설과 단군의 이름은 조선 발음으로 태기(太祈, 타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태기와 이소타케루노 미코토는 동음이라는 것이다. 이소타케루의 이소(五十)라는 말은 일종의 접속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시 말해 태기와 타케(猛)라는 두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그 발음이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스사노오노 미코토가 계셨다고 하는 소시모리라는 땅은 조선어로 우(牛)를 '소이'라고 부르고 두(頭)를 '머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곧 소시모리는 강원도의 우두산(牛頭山)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 '소시모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조선어의 '소이머리'가 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스사노오노 미코토를 고즈텐노(牛頭天王)라고 부르며 곳곳에서 제사지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산인(山陰) 방면의 방언과 조선어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필자는 그 지방을 여행하고 느꼈고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이런 관계에서 보건대 조선의 시조 단군은 다시 말해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아들 이소타케루라고 고찰할 수 있으므로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원래 모두 이자나기(伊弉諾)[25]・이자나미(伊弉冉)[26]라는 두 신의 후예가 다스리시는 동족동조(同族同祖)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논란도 있는 모양인데, 전설은 전설로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박달나무 그늘 아래의 위인 단군은 만년을 아사달산에서 보내고 천하를 잘 다스린 뒤 그곳에서 천수를 다했다. 그러나 단군의 자손들은 10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통치했다고 전해진다. 단씨(檀氏)를 대신해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중국에서 온 기자(箕子)이고 자손은 거의 900년 동안 이어졌지만 위만(衛滿)으로 인해 멸망하고, 그 위만은 또 중국으로부터 멸망한 이후 50여 년은 한(漢)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여러 독립국이 생겼다. 삼한이 멸망하고 새로이 일어난 신라의 박혁거세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그 무렵 지금의 동해안의 어느 한촌(寒村)에 소벌공(蘇伐公)이라는 촌장이 있었다. 어느 날 낙엽을 모으기 위해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자 어딘가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익숙하지 않은 울음이었기에 촌장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가자 말 옆에 큰 알이 있었다. 그는 말이 알의 소재를 자신에게 알린 것으로 보고 알을 들어보니 크고 무거웠다. 그래서 무슨 알인가 싶어 알을 깨 보니 놀랄 일이 벌어졌다. 알 속에서 한 명의 아기가 뛰어나왔다. 촌장은 놀라는 한편 기뻐하며 이 영아를 데리고 돌아가 자신의 아이로 길렀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매우 총명하고 용맹했으며 또 스스로 덕망을 갖추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이 소년을 따르고 그의 명성은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13세가 되자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라 스스로 박혁거세라 부르고 또 도읍을 정하고 서라벌이라 불렀다.

박혁거세는 잇따라 세력을 얻어 사방을 정복하고 신라는 더욱 번창해 훗날 백제와 고려를 모두 병탄하고 말았다.

이 신라의 태조 박혁거세가 바로 황대신궁사(皇大神宮史)에 따르면 진무천황(神武天皇)[27]의 형이신 이나히노 미코토(稲氷の命)가 배를 타고 경상북도 동해안의 영일만 부근에 상륙해서 신라를 건설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박혁거세가 마치 닭의 계란처럼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은 애당초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이 알이라는 것은 배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배를 타고 말과 함께 건너온 사람이 마침내 천하를 평정했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라왕의 양자 탈해왕이 스이닌천황(垂仁天皇) 시대에 명을 받들고 바다 저 멀리에 있는 나라에 비시향(非時香)－과실을 따오라고 보낸 다지마모리(田道間守)라는 설도 있다.

어쨌거나 고대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3000년 뒤, 즉 1910년

25)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남신.
26)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27) 일본의 제1대 천황으로 알려져 있다.

8월 29일, 천운(天運)이 순환하여 일한병합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번성을 보라. 건설된 낙토 반도 곳곳에 고복격양(鼓腹擊壤)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 않은가.

제7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위업

고금 불세출의 영매한 군주 메이지대제께서는 1912년 7월 30일에 돌아가셨다. 보산(寶算) 61세이셨다.

국민들은 모두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일찍이 우리 국민의 군주이자 부모이고 또 황송하게도 스승으로서 받들고 경외하고, 또 송구스럽게도 친근함을 갖고 천상천하 유일한 힘으로 의지하며 기대고 있던 만큼, 그 비탄은 비할 바가 없고 마치 천지의 나락으로 내던져진 것 같이 망연자실했다. 도시도 시골도 불이 꺼진 것처럼 적막감에 휩싸였고 일본 전국은 시커먼 우수의 구름에 깊이 가라앉았다.

이에 앞서 1912년 7월 20일 아침, 돌연 궁내성(宮內省)은 메이지천황 중태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청천벽력이란 바로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민들은 모두 경악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저 열성을 다해 평유(平癒)를 기원했고, 스스로 절제해서 공구근신(恐懼謹愼)의 뜻을 표하고 수운(愁雲)이 순식간에 일본 전국을 감싸는 느낌이었다. 특히 황거가 있는 도쿄 시민들은 무더위도 잊고 삼삼오오 자연스레 니주바시(二重橋) 앞에 있는 광장에 모여 궁성에 절을 하고 뜨거운 자갈 위에 엎드려 신명의 보살핌을 기원하는 자들이 줄을 이었고, 밤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길이 멀든 가깝든 간에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기를 무려 수만 명, 열도(熱禱)를 올리고 신자(臣子)의 적성(赤誠)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 보람도 없이 용체가 무거워지시면서 심우(深憂)에 휩싸여 모이는 자들은 27~28일 양일에는 무려 7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또 각 지방에서는 멀리 궁성의 하늘을 향해 국민 모두 평유를 밤낮으로 빌었지만, 신명의 보살핌과 가호도 소용없이 같은 달 30일 오전 영시 43분 메이지천황께서는 붕어하셨다.

메이지천황의 치세가 일본 역사에서 가장 특색 있고 또 가장 혁혁한 광휘를 비춘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보산(寶算) 16세에 황위를 계승하시고 곧바로 유신의 대업을 이루어 구습을 타파하고 사민(四民)의 계급을 폐지한 뒤 선진문명국의 장점을 받아들여 우리 단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열국과 대치해서 동양 대제국의 위치를 차지하시고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를 정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이를 발포, 오로지 국가의 방침을 개국진취에 두고 유럽 각국과 경쟁하면서 먼 동해의 한 섬나라를 세계 강국의 대열에 올려놓고 황위(皇威)를 세계에 빛내셨다. 실로 천고무비(千古無比), 만국의 역사에도 끊이지 않는 성사였다. 그 성덕(盛德)은 천고에도 마멸하지 않고 실로 불후의 일대 금자탑이다.

메이지대제가 붕어하신 데 대해 국민의 애도와 비통의 지정은 외국인으로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세계의 각 신문지는 하나같이 메이지천황의 성덕과 일본국민의 통한의 마음을 전했는데, 그중에도 영국 신문『해머 가제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동정을 보이면서 일본국민의 특이한 성질을 설명하고 있었다.

황제 붕어로 일본국민이 심심하고 통절한 비애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굳이 멀리 도쿄까지 갈 필요도 없다. 런던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다.

바다와 산, 만리나 떨어진 타향에서 이 비보를 접하고 통곡하는 그들의 비통한 마음을 목격한다면 진정 가슴 아픔을 느낄 수 있다. 런던에는 현재 약 400명이 거주하는 일본인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평상시에도 정숙하면서도 품격 있는 외국인 거리이다. 원래 그들의 습관으로 상을 당하면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영국의 풍속에 따라 모두 검은 띠를 붙이고 있다. 장례식 당일에는 특별한 의식을 해서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일본의 사원이 하나도 없다.

이 기사는 일본국민의 특이성을 잘 관찰하고 있고 문장에는 심심한 동정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다.

장례식은 9월 13일 저녁 아오야마(青山) 장장전(葬場殿)에서 장중하면서도 삼엄하게 큰 문제 없이 거행되었지만, 그날 저녁 아카사카신마치(赤坂新町) 자택에 있던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 백작이 자신의 집에서 메이지천황의 어진영(御眞影)을 봉안하고 진신(眞榊)을 바친 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시즈코 부인과 함께 할복함으로써 대제를 위해 순직했다. 그 장렬한 지성·지충의 행동은 천고불후의 일대 비사(悲史)이며 지금도 여전히 나부(懦夫)로 하여금 분기케 하는 바가 있다.

제8 세계대전의 재앙

일러전쟁 이전까지 일본은 세계로부터 서양의 흉내를 내는 황색 원숭이라는 경멸을 받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멸당할 만도 했다는 부분이 없지도 않았다. 특히 로쿠메이칸(鹿鳴館)[28] 시대의 구미문화 정책의 당시를 돌이켜보면 일본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로쿠메이칸 시대란 1884~1885년부터 1887년경에 이르는 시대로 당시의 외무장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후작이 조약개정을 성취하려면 온 나라가 구미화함으로써 구미인으로 하여금 일본이 동상동체(同狀同體)의 나라라는 감정을 품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당시 수상 이토 히로부미 공 등과 힘을 합쳐 급조해서 만든 구미화 정책을 강조하고 우리 상류사회도 여기에 공명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바로 상하 모두 일본의 구습을 내던지고 하루아침에 서구식 세상으로 변하면서 천박한 서양풍 만능시대를 출현시켰다. 이 시대를 아는 자는 서양의 흉내를 내는 황색 원숭이라고 경멸했음에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정말 이상한 시대였다.

그런데 전후에는 각 국이 일제히 존경의 마음을 갖고 맞이했다. 그중에는 일본의 장래를 예상하고 전율하고 공포는 느끼는 자도 있었고, 또 새로운 공포에 위험을 느끼는 자도 있었으며, 황화(黃禍)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배일(排日)의 외침은 점차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국민은 묵묵히 국가의 성운을 기도

28) 도쿄 히비야(日比谷)에 있던 메이지시대의 관영 사교장으로 영국인의 설계로 1883년 완성되었다. 상류계급의 무도회 등이 열려 이른바 구화주의(欧化主義)의 상징이 되었고, 1941년 파괴되었다.

하고 정신적 팽창에 협력했다.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고, 퇴영은 망국의 원인이다. 우리 국민이 정신적 팽창에 협력하는 것은 외부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며 국민으로서 건전한 존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복지를 위하려는 광휘 있는 우리 대일본제국의 전통적 국시이자 사명이다. 그리고 이 건국의 대정신에 입각해 정의의 큰 깃발을 흔들며 용감하게 분투하는 것은 정신적 팽창에 노력하는 까닭이다.

다이쇼천황(大正天皇)의 어우(御宇) 3년 6월, 즉 서력 1914년 6월 28일 발칸 일각의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것에서 발단이 되어 순식간에 유럽은 불기둥이 치솟았고, 국가라고 불리는 곳은 거의 전란의 와중에 휩싸였다. 그리고 전후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럽 전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수만의 생령과 막대한 전쟁비용을 희생했고 각 국이 자랑하던 문화의 전당은 모두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유사 이래 미증유의 대전!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쌍방을 합쳐 6,000만 명, 이 가운데 700여 만 명은 전사하고, 600여 만 명은 불구자가 되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각 국이 입은 손실은 1,696만 7,3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그 전쟁비용은, 놀라지 말라, 무려 3,77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써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드러냈는가는 상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당시 일본은 영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고 있던 관계상 영국의 간청에 다라 그해 8월 15일 독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의적 권고의 전문을 통고했다.

제국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극동의 평화를 문란케 하는 원천을 제거하고 일 · 영 동맹협정이 예상하는 전반의 이익을 방호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해당 협정의 목적인 동서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지극히 긴요한 사안으로 보고, 여기에 성의를 갖고 독일 정부에 권고하는 바, 동 정부에서 아래 사안에 대해 동의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 일본 및 중국 동양 방면에서 독일국 함정은 즉시 퇴거할 것. 퇴거하지 못하는 것은 즉시 그 무장을 해제할 것.

둘째, 독일제국 정부는 교주만(膠州灣) 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할 목적으로 1914년 9월 15일을 기해 무상조건으로 일본제국 관헌에 교부할 것.

일본제국 정부는 위와 같은 권고에 대해 1914년 8월 23일 정오까지 무조선 응낙하는 뜻을 독일 정부로부터 회답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취할 것임을 성명한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소정의 기일인 8월 23일 정오가 되어도 회답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과 독일은 그 시각부터 교전상태에 들어가 이날을 기해 선전(宣戰)의 대조(大詔)는 환발되어 양국은 곧바로 작전행동을 개시했다.

즉 독립 제18사단장 육군 중장 가미오 미쓰오미(神尾光神)를 칭다오(靑島) 공위군(攻圍軍)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해군 중장 가토 사다키치(加藤定吉)가 이끄는 2함대를 출동시켜 바다와 육지 양면에서 칭다오로 향했고, 한편 영국은 협동작전의 목적으로 파나지스턴 소장이 이끄는 한 부대를 가미오 사령관의 지휘하에 넣었다. 이리하여 10월 29일부터 총공격을 개시해 각 포대에 맹공을 퍼부어 파괴하고 침묵

시켜 11월 7일을 기해 마침내 독일군이 백기를 들게 만들었다. 또한 독일은 남양에 수많은 식민지를 영유하고 그곳을 독일 해군의 기항지로 삼고 있었는데, 일본은 독일과의 개전과 더불어 이러한 해군 기항지를 복멸하는 것을 가장 긴급한 일로 보고 독일이 갖고 있는 남양제도를 공략하기로 하고, 1914년 10월 먼저 마샬 군도 가운데 잘루이트 섬을 점령, 이어서 나머지 섬들과 마리아나 제도 카로린 군도를 영유하고 빛나는 우리 일장기는 펄럭이며 남양 일대를 제압한 것이다. 유럽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러시아와 프랑스는 영국을 중개로 일본에 3개 군단 파견을 부탁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거절했다.

그 이래로 일본의 군대는 징병제도 및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 조직된 것으로, 그 유일한 목적은 국방에 있으므로 국방의 본질을 완비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일본의 군대를 멀리 원정 보내는 것은 그 조직의 근본주의와 맞지 않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행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결승적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추측해서 10개 군단 이상의 병력을 유럽에 파견해야 한다. 이는 일본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 뒤 연합군 측에서 다시 일본군의 파견을 간청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결코 응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해군의 파견을 간청했지만, 일본은 이 또한 유감스럽게도 희망에 부응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그 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종 간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1917년 5월 구축함을 지중해에 파견했다. 이에 대해 장래의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이 이미 점령한 남양제도를 영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그 뒤 독일이 굴복해서 1921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강화조약 체결 당시 남양제도의 일본 영유는 부정되었지만, 적도 이북의 지역 통치를 위임받고 우리나라는 마샬 및 카로린 군도의 수임국이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제9 시베리아 출병사건

1914년 여름 발발한 유럽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연합군에 가담해 서부전선에서 독일 · 오스트리아군과 대적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식량의 결핍을 초래했다. 국민의 궁핍은 나날이 심해지면서 결국 식량폭동이 각지에서 발발하면서 봉기가 일어났다. 정부의 고압적 진압도 이미 아귀도(餓鬼道)에 빠진 러시아 국민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폭동은 더욱 격화되어 1917년 3월 11일 혁명전쟁이 돌발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복되었고 동시에 혁명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니콜라이 황제는 암살되고, 황후 · 황태자 · 황녀 등은 유폐되어 그렇게도 영화를 자랑하던 로마노프 왕조도 허망하게도 근화일조(槿花一朝)의 꿈이 되고 말았다.

레닌 · 트로츠키 등의 과격파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혁명정부는 그 과격 사상을 전 유럽에 부식하고 나아가 시베리아를 석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약 10만의 독일 · 오스트리아 포로까지 여기에 가담하여 더욱 폭위를 휘둘렀다. 심지어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질서도 매우 문란해졌기 때문에 동양의 보안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싸움을 시작하자 오스트리아에 있던 체코 슬로바키아인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탈출해 러시아로 도망가거나 혹은 독일 · 오스트리아군에 있던

자들은 러시아군에 투항하는 등 그 숫자는 무려 20만에 달했고, 그 과반수는 시베리아에 들어갔다. 그 무렵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자들만 해도 무려 1만 3,000명에 달했을 정도다. 그들은 이 전란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독립국 건설을 열망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붕괴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을 서부전선에 받아들이는 것은 연합군 입장에서는 유리하였고, 또 초미의 급선무였다.

그래서 1918년 체코 슬로바키아군의 동진(東進)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제의로 일본은 이에 응해 그해 8월 2개 사단을 시베리아에 파견하게 되었고, 우리 시베리아 파견군은 과격파 군을 소탕·구축하여 약 2개월 만에 시베리아 일대를 우리 수중에 넣었다. 그래서 체코군이 서부에서 차단되었던 우군과 완전히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일본으로서는 훌륭한 성과였다.

한때 시베리아를 완전히 석권한 과격파 군도 일본군의 압박과 일본의 지원을 받은 반과격파 군의 대두로 세력은 쇠퇴해졌고 반과격파 군의 러시아 정부 건설을 한때 이루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권토중래한 과격파 군으로 인해 격퇴되어 남풍불경(南風不競), 형세가 불리해졌다. 뿐만 아니라 보호를 의뢰받은 체코 군마저 도리어 과격파 군에 가담해 반과격파 군도 도망가거나 과격파 군에 투항하는 자들이 속출해서 극동은 또 다시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에 상응해서 영국·프랑스 양국도 러시아의 북남 양 방면에 약간의 부대를 파견해 반과격파 군을 지원하고 과격파 군의 노농(勞農) 정부를 무너뜨리고 적화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반과격파 군의 주동자들이 잇따라 몰락하는 한편, 외국의 병사들은 러시아 공산당원에 자극을 주어 그 대외적 자각을 촉진해 국민적 결속을 다짐으로써 도리어 노농 정부의 위치를 견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초 외국의 출병 지원을 열망하던 반과격파 군도 이런 정세를 보고 외국병사의 주둔을 반기지 않았고 반대로 우랑겔을 지원한 프랑스나 세미요노프를 지원한 일본에 대해 비난을 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미국은 이런 추세를 보고 주둔병의 무익한 노력을 간파해 1921년 1월 철병을 시작하고, 영국·프랑스 양국도 철병했지만, 오직 일본만은 주둔을 계속했다.

시베리아에 주둔하던 중의 비극은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 항구(泥港)의 학살사건이었다. 포악하기 그지없는 빨치산 때문에 이시다(石田) 영사 및 그의 가족, 미야케(三宅) 소좌 이하 육해군 장병들이 순직했고 생존자는 모두 학살되었다. 이 참사는 지금도 국민들의 기억에 새롭다.

4년간의 시베리아 출병은 일본으로서는 얻은 바가 별로 없었고 잃은 것이 매우 많은 것이었다. 밖으로는 열강의 불신을 초래했고 러시아인의 원한을 샀으며, 안으로는 폐하의 간성(干城)을 오랫동안 타향에 보내 막대한 국고를 소비했을 뿐이다.

평화를 애호하는 일본이 아프지 않은 배를 더듬어 영토적 야심을 포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 설령 일시적이긴 해도 그런 악선전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베리아 출병사건은 유·무형의 일대 손해였다.

제10 5·5·3의 굴레

1914년 이래 유럽 전체는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유럽대전도 마침내 독일·오스트리아가 굴복했기 때문에 1919년 6월 28일을 기해 강화조약이 성립했다. 이보다 앞서 전년 11월 대 독일·오스트리아 휴전 강화조약이 체결되자 연합국의 강화위원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모였다. 그 회의에 참가한 연합국의 숫자는 무려 27개국이었다. 강화회의의 부산물로 국제연합 규약이 생겼다. 연합국에는 두 가

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창립위원국으로 처음부터 연합국이고, 다른 하나는 연맹총회의 승인을 거쳐 수시로 가입하는 것이다. 또 원래의 연합국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세계대전 당시 연맹국으로 참가한 나라, 다른 하나는 대전 중 중립을 지키고 연맹 가입에 초빙된 나라이다. 그리고 일본은 연맹국의 제1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맹의 제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진정 평화주의 실현의 일단으로서 인류 차별 철폐, 즉 인종평등주의를 제창하고 그 조문에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원일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이는 영·미 지상주의, 국제정정(政情) 반칙에 의한 것이라며 영·미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국제연맹의 제안에 찬성한 것은 세계의 각 국을 공평하게 번영시키고 서로 돕고 각 국민들의 생존을 영원히 보장하기 위해 그 필요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이미 회의의 벽두에서 이 인종평등의 원칙은 일축되었다.

연맹 규약 성립 당초에 기초적 정신에 절대적인 격차가 있었다. 국제(國際)와 인도(人道)를 유린하고서 어찌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국제연맹의 비합리성은 그 첫 걸음에서 이미 배태되고 있었다.

국제연맹 규약에 이어서 탄생한 것은 군비제도 문제이다. 1921년 미국 상원의원 보라는 일·영 양국과 향후 5년간 3국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군비를 축소하는 양해를 구하고 협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신속히 회동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군축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것이 통과한 결과 당시 대통령 하딩은 군비제한 문제와 동시에 태평양 및 극동문제에 관해 심의하는 목적으로 워싱턴회의를 제창하기로 결심하고 1921년 비공식 교섭을 한 결과, 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찬성을 얻어 8월 11일 초대장을 4개국에 보냈고 회의는 11월 11일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보라가 이 문제를 제출한 동기는 전쟁의 참화에 전율한 세상 사람들이 군비확장에 다른 비용의 절대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운동을 일으킨 것이 순식간에 번졌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이 회의의 벽두에 미국 수상 전권 국무장관 휴즈는 해군제한 문제에 관해 폭탄적 제의를 했다. 각국은 대체로 이에 찬성의 뜻을 밝혔지만 영국과 미국에 대해 해군력을 할당받은 일본은 말이 안 된다며 고군분투, 극력 이 안에 반대했지만 우여곡절을 거친 결과 5·5·3이라는 비율 불평등의 굴레에 묶이게 되었다. 그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영·미·일의 주력함은 5·5·3으로 한다.
2. 일본은 세쓰(攝津)를 폐기하고 미치노쿠(陸奧)를 넣고, 미국은 '노스 다코타'·'델라웨어'를 폐기하고 '워싱턴' 및 '콜로라도'를 넣고, 영국은 3만 5000톤을 초과하지 않는 2척을 건조하고 '킹 조지 5세'급 4척을 폐기한다.
3. 이 결과 3국의 보유 주력함과 톤 수
   미국 18척 52만 5,000톤
   영국 20척 58만 1,200톤
   일본 10척 31만 2,000톤

4. 대함(代艦) 건조 결과
   영국 15척 52만 5000톤
   미국 15척 52만 5000톤
   일본 9척 31만 5000톤
5. 향후 10년간 주력함의 건조를 중지한다.

다음으로 보조함의 제한 문제와 잠수함 전량 폐기문제도 일어났다. 그 결과 항공대는 보유량, 영·미 각 13만 5,000톤, 일본 8만 1,000톤, 프랑스·이탈리아 각 6만 톤으로 군함 총수는 2만 7,000톤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함포도 구경 240미리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었다.

워싱턴 회의에서는 그 밖에도 잠수함 및 독가스 사용 제한에 관해 5개국 조약,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 일·영 동맹을 대체한 태평양 평화 유지에 관한 일본·영국·미국·프랑스 4개국 조약이 성립하고, 2월 11일을 기해 종료되었지만, 영·미는 몰래 손을 잡고 일본에 대해 고압적인 수단으로 억압했다.

여기에도 불합리한 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가짜 평화는 있어도 진정한 항구적 평화는 확보할 수 없다.

제11 만주사변까지

워싱턴 회의는 일본의 실권(失權)회의였다. 미국은 일·영 동맹을 폐기시키기 위해 암주모색하고 의도대로 성공한 그들은 영국과 책응(策應)해서 일본에 고압적인 수단을 취했다. 군축회의에서 일본에 대해 5·5·3이라는 비율 불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해 9개국 조약을 성립시켰고, 이시이－랜싱 협정을 폐기하도록 했다. 나아가 산둥 문제에까지 언급하면서 이전에 베르사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회의에서는 영국과 손을 잡고 고압과 알선에 의한 일·중 직접교섭을 성립시킨 결과 우리나라는 엄청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삼국간섭' 사건이 있은 지 얼마나 지났단 말이냐. 일본은 세계로부터 세계의 3대 강국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영·미에 훨씬 뒤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쥐어도 당시의 영·미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다. 분함을 참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예부터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외교의 극의(極意)로 생각하고 이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나라다. 일본이 한 번 워싱턴 회의에서 영·미의 고압적 수단에 굴복하자 일본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취하며 사사건건 경멸하며 결국에는 악의적인 외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리는 꼴이다. 일본의 역경은 일청전쟁 직후의 와신상담 시대보다 훨씬 심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은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안으로는 나쁜 사조가 팽창했고 이러한 곤란에 대해서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 무리들은 부화뇌동하여 오로지 옛 양풍미속을 없애려는 기세를 보였다. 사회는 그저 사치와 방탕으로 치달았고 절제도 없고 질서도 없이 인륜은 거의 문란해졌으며 허식을 일삼고 나태함은 성격이 되었고 기만은 습관이 되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많은 이익만을 얻고자 하고 온갖 폐해가 여기서 생겨 병의 뿌리가 깊어서 낫지를 않고 온 세상이 물들어 자신만을 알고 타인을 돌아보지 않으며, 아무렇지 않게

염치없는 짓을 저지르고 거리낌 없이 법망을 뚫고 부덕과 불의는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게 되면서 세상 인심의 피폐는 극에 달하려고 한다. 일본이 위험하다. 해 뜨는 나라는 막막한 검은 구름에 휩싸여 암흑세계로 변하려고 했다. 한편 정당인 중에는 사리사욕에만 힘을 쏟아 안중에는 자신의 당만 있고 국가는 없으며 당쟁에만 몰두하면서 외부 정세는 전혀 돌보지 않았고 오로지 위축·퇴영할 따름이다. 전원은 날로 황폐해지고 농촌은 다달이 피폐해졌다. 일본의 정세를 관찰한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 세력을 중국에서 몰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중국의 일본 권익의 폐기와 제거, 일본인 방축의 간책은 나날이 노골적으로 변했고 순조롭게 실행되었다. 일본은 마치 아침에 성 하나를 빼앗기고 저녁에 요새 하나를 빼앗기는 형태로 더욱 위축되고 퇴영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남쪽에서, 혹은 북쪽에서 다년간 쌓아올린 지반을 포기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오는 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만주에서는 구 군벌의 폭군 장쉐량(張學良)은 일본의 내부 약점을 간파하고 일본을 욕보이고 배척하는 일을 일삼으며 각종 단체를 선동하여 일본을 배척하는 행동을 했다. 또 군대에 대해서는 배일(排日)군가를 부르게 하여 일상의 군사교련에도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 순진무구한 소학 아동들에게까지 철저한 배일교육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거리에 서 있는 순경까지 우리 소학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 배척 행위는 나날이 증가하여 돌을 맞고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소학 아동도 곳곳에서 속출하게 되었다.

이는 모두 우리의 퇴영적인 외교가 초래한 죄다.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고, 퇴영은 망국의 원인이다.

만주의 권익은 어떻게 일본이 획득했는가. 일본은 국운을 걸고 러시아와 싸웠고 그로 인해 10만 명의 생령들을 희생시켜 10억의 국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20억 가까운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장쉐량은 집요하고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 배척과 굴욕을 하고 있으며 일본인을 만주에서 몰아내 만주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무시하고 유린하려고 한다. 위험하도다 일본! 누가 듣고 있단 말인가, 왕년의 일러전쟁에서 만주에 주검으로 남은 우리 충용의열한 영혼(英魂)이 흐느끼는 소리를!

1931년 9월 18일 난폭하기 그지없는 장쉐량 휘하의 왕이철(王以哲) 군대는 마침내 기회를 틈타 펑톈(奉天) 류탸오거우(柳條溝)의 우리 만철선을 폭파했다. 오랫동안 참아온 일본은 끝내 분연히 일어나 단호하게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황군'[29]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비상수단을 취해 사적 과두정치에 입각해 가혹한 착취 행위기관인 장쉐량 정권과 그를 둘러싸고 있던 일련의 정상(政商)을 순식간에 복멸(覆滅)시키고 일본의 생존권 확보를 명확히 밝혔다. "만주 없는 국군은 없고 황군 없는 만몽(滿蒙)은 없다"라며 우리 황군의 정예가 기세등등하게 오랫동안 울적해 있던 일본민족의 답답함을 풀어준 것도 이때였다.

제12 자주적 외교로

황군은 만주 곳곳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장쉐량 정권은 순식간에 완전히 분쇄되었다. 만주에서 일본 세력을 몰아내려고 온갖 간책을 꾀한 장쉐량은 도리어 황군에 의해 전복되었다.

---

29) 일본군.

이제 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자업자득이다. 장쉐량이 쌓은 악덕이 대가를 치른 것이다. 종래 동북 군벌의 폭군 장쉐량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던 만몽의 3,000만 민중들은 황군의 궐기로 완전하게 해방·구원받아 사회적으로도 혁신의 전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급격하게 고양된 신국가 건설의 계획은 단시일에 구현되어 이듬해 1932년 봄 3월 그 옛날 청조의 어린 군주 선통제(宣統帝)였던 푸이(溥儀) 씨를 맞이해 신국가 원수로 추대하고 만주국 정부 이름으로 역사적인 건국적 선언을 중외에 선포했다.

푸이 씨의 집정 취임을 단계로 패도입국이 아니라 왕도정치를 통해 낙토건설의 이상에 매진하게 되었고, 봉건적 군벌정치의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중앙집권적 근대국가 체제로의 선명한 전환을 마친 것이다.

그 이래로 재정 확립의 치안에 힘쓰고 국가의 기초 안정, 나아가 일본이 승인하게 되면서 명실 공히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정비하게 되었는데, 만몽 3,000만 민중들의 열렬한 요구와 순천안민(順天安民)의 큰 뜻에 입각해 건국 제3년에 황제 제도를 실시했다.

1935년(康德 2) 5월 만주국 황제는 일본을 방문하시어 귀국 후 일·만 불가분에 관한 대조(大詔)를 환발하시고 이 조서에 의해 만주국의 국시가 정해짐으로써 동양 100년 평화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반대로 주장한다. 1931년 9월 18일 장쉐량 군의 우리 만철선 폭파사건이 발단이 되어 우리 자위권을 발동하게 되었고 만주사변을 전개해 이듬해 1932년 2월 상하이(上海)에서 일·중 충돌사건이 속출해 황군이 출동하게 되었으며, 묘행진(廟行鎭) 전투에서는 육탄3용사가 나타나 중국 군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은 비행기 시대로 폭탄3용사를 대신하는 육탄비행사를 필요로 한다. 나는 혈맹의 지사를 얻어 언제든 육탄비행사로서 황군으로서 순직할 만큼의 각오를 갖고 있다.

만주에서의 우리 자위권 행사는 생명선의 확보, 국가존망의 이익권 옹호이고 상하이 출동은 거주 일본인의 보호와 우리 권익의 옹호에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 가능한 신속히 일·중 양국 간의 직접 교섭으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희망한 것이지만, 이이제이를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는 중국은 극력 직접 교섭을 회피하고 연맹 또는 제3국의 간섭을 끌어들여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을 실권시킨 것 같은 효과를 올리기 위해 밖으로는 일본을 업신여기고 안으로는 위용군(僞勇軍)을 사주하거나 사의대(使衣隊)를 보내 만주의 치안을 교란하고 사건의 확대와 서약을 무시하고 현지의 직접 교섭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어 전황을 확대했다. 그 책임은 바로 중국에 있다.

그리고 이 양대 사건은 국제연맹의 의제가 되어 연맹 각 국은 중국의 선전에 교묘히 휘둘려 일본에 대해 압박하는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정의의 큰 깃발을 흔들며 당당히 이에 임했지만, 결국 리턴이 이끄는 조사단을 중국과 만주 현지에 파견해서 이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미 연맹 결성 당초부터 비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았으며 만주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인식 부족이다. 그 결과 과연 장쉐량을 붙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 국민은 모두 이 조사단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리턴 이하 조사단은 1932년 3월 1일 도쿄에서 당시의 수상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씨와 공식 회견을 가진 것을 비롯해 아라키(荒木) 육군장관, 요시자와(芳澤) 전 외무장관 등과도 회견을 갖고 그 의견을 청취한 뒤 중국에 건너가 중국 측 요인들과도 외견을 가졌다. 그 뒤 만주에 도착해 현지에서 사정을

청취한 뒤 집정 푸이 씨, 정(鄭) 국무총리 등 만주국 대관 및 일·만 각 관계자들과도 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7월 19일 도쿄로 돌아와 다시 아라키 육군장관, 우치다(內田) 외무장관 등과 회견한 것을 마지막으로 귀국했다. 리턴은 5개월에 걸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면서 어디까지나 일본을 불리한 입장에 빠뜨리려는 심산이었기 때문에 그 조사보고는 전적으로 정곡을 벗어났고 만주사변의 도화선이 된 류탸오거우 만철선 폭파사건에 대한 황군의 행동은 정당한 자위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 건설은 만몽 3,000만 민중들의 총의에 의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망단(妄斷)해서 일본 국민을 흥분시켰다.

실로 리턴은 조사의 범위를 뛰어넘어 도일(渡日) 당시 만주를 중국의 주권 아래 두는 등의 일종의 조정안 같은 것을 들고 온 일부터 심한 월권으로, 자신의 인식 부족을 폭로한 것이다.

그렇다. 그 뒤 만주국 제국에 대해 리턴은 자신의 불찰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런던 전보는 전하고 있다. 그 뒤 제국 정부는 리턴 보고서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하고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를 제국 대표로 제네바에 파견해 연맹회의에 참석시켜 공명정대한 제국의 입장을 밝히고 당당히 의견을 말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주문제는 정곡을 찌른 우리 제국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러니 연맹은 신속히 만주국을 승인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맹공을 퍼부었지만, 연맹 측은 이 의견을 유린하고 1933년 2월 24일 최후의 이사회에 리턴 보고서의 유린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채택 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마쓰오카 전권대사가 당당히 나섰지만 결국 표결에 들어가 44개국 가운데 샴 1개국만 일본 및 만주국에 동정을 표하고 기권했을 뿐, 42대1로 일본의 정론은 분쇄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이 무모하고 권위 없는 연맹에 머물 수 없다며 연맹에서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제네바에서 마쓰오카 대표 이하 각 전권대사들을 즉시 귀국시킬 것을 통고하는 동시에 세계에 그 성명을 발표했다.

과거 10년간 일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국제연맹을 위해 노력을 계속한 일본의 진의는 바로 평화협조주의이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열망할 뿐이었다. 일본은 항상 각 국과 협조를 취해왔다. 황도 일본의 국시를 무시하고 공명정대한 주장을 분쇄당한다면 오히려 명예로운 고립을 선택할 뿐이다. 일본은 여기에 이르러 퇴영과 비굴 외교를 벗어던지고 의연한 태도를 중외에 보여준 것이다.

제13 부국강병의 표징

만주사변은 일본 국민의 미몽을 각성시킨 일대 경종이었다. 위축된 민심을 발분시켜 호매(豪邁)하고 활달한 일본남아 본래의 면목을 다시 되찾았다. 퇴영 비굴한 낡은 외교를 벗어던지고 건국 3000년의 자주적 정신으로 부활했다. 만주사변은 황도 일본의 사명을 향해 매진하기 위한 기회를 신이 일본 국민에게 계시한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전원의 황폐도 되돌아보고 피폐한 농촌의 진흥에도 박차를 가했다. 교육과 학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산업은 부흥해 수출과 무역은 약진한다. 진출하는 일본의 상품은 세계의 무역시장에 심대한 위협을 주었다. 세계에 비할 수 없는 저렴한 임금으로 활동하는 일본 상품이 환율의 파국적 저가를 통해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일본 상품은 완전히 파죽지세로 세계 곳곳에 진출했다. 그 결과 세계시장에는 또 새로운 무역 분쟁을 야기해 각 국은 관세 인상은 물론 수입할당제도 쿼터 시스템을 내세워 필사적으로 방어를

시도하게 되었다. 영국 같은 곳은 종래의 자유정책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향했고 일본 상품의 구축(驅逐)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국 인도에서는 일본 면포의 금지적 관세 부과를 단행하게 되었지만 일본도 곧바로 인도 면포 불매를 결정하고 보복수단을 취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외국의 관세장벽이나 수입제한에도 대항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 상품이 더욱 진출함에 따라 무역 분쟁은 어디까지 진전될지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데, 그것도 국민의 단결과 싸고 좋은 물건으로 대항하면 된다. 결국 싸고 좋은 물건이 세계를 풍미한다. 인류 후생을 위해 세계의 공도(公道)를 닦는 일은 일본의 대사명이다.

그런데 조선의 상황은 어떤가? 조선의 산업도 현저히 향상했다. 우가키(宇垣) 전 총독의 산업장려정책은 이제 조선 전체에 철저히 파고들었고 산금 일억 엔도 문제는 안 된다. 산금(産金) 2억 원을 모토로 삼아 가행(稼行)에 노력하고 있다. 농촌의 갱생은 농민의 자각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각 부락에는 부업저금 · 비황(備荒)저금 · 산업저금 · 절미저금 등 나날이 급증하는 한편, 심전개발(心田開發)운동이 강조되어 일본인 · 조선인 한 덩어리가 되어 굳게 손을 잡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예양(禮讓)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서로 반목한 일본인과 조선인의 분쟁 따위는 완전히 일소되었다. 작년 우가키 씨가 떠나고 미나미(南) 총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조선통치의 근본정신은 시종일관된 것이다. 선만일여(鮮滿一如)를 고조시키고 각종 정치의 결실은 나날이 상승하고 황도 일본의 대사명에 자각한 일본인 · 조선인은 서로 제휴해서 국시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부국강병의 염원은 일본 내지 · 조선의 아동들 가슴속에도 숨 쉬고 있고 가련한 국방헌금은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한때 암운에 갇혀 있던 일본은 이제 명랑하고 해 뜨는 일본 본래의 모습으로 빛나는 광휘를 비추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진정 떨쳐 일어설 때이다. 종래 광산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는 우연히 문명금산(文明金山)을 손에 넣어 다행히 광맥을 발굴했기 때문에 12만 원으로 산을 매입했다. 이는 하늘이 내게 준 것이다. 결코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비행기 헌납을 생각해낸 것도 바로 이 신념 때문이다. 나는 유사시에 헌납한 비행기에 탑승해 혈맹의 지사와 함께 육탄3용사를 대신한 육탄비행기로 적의 진지에 폭탄을 투하할 작정이었지만, 육해군의 규칙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단 한 대의 헌납뿐이지만 육해군 대신으로부터 국방의 중책을 유감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들었다. 나는 그만 소리 내어 울고 말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볼을 적셨다. 국제위기에 직면해 미국도 영국도 소비에트연방도 비행기의 충실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본은 비행기를 충실하게 갖추는 일이 급선무이다. 내가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를 제창한 까닭도 국방을 완비하고 싶기 때문이다. 근래 각지에서 기부가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는 나를 격려하며 혈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눈물겨운 소년소녀의 헌금도 있다. 내가 현재 가행(稼行)하고 있는 백록금산(白鹿金山)에서 재작년 가을 우연히 결정금(結晶金)이 수차례 나왔는데, 최초에 나온 것 중에 두꺼비 형상을 한 것이 있었다. 마치 자웅 같았다. 예부터 조선에서는 금두꺼비가 나타나는 것은 부국의 표징으로 보고 있고 부국강병이야말로 국민 모두 염원하는 바이다. 나는 우연히 재작년 조선을 방문한 덕대사(德大寺) 시종에게 그 서조(瑞兆)를 말하고 생각을 물어본 뒤 목욕재계하고 자웅의 금두꺼비를 깨끗이 씻어 당시의 총독 우가키 씨의 손을 거쳐 헌납 절차를 밟았는데, 성상폐하께서는 1935년 10월 31일 기꺼이 받아주셨다. 나는 성은의 광대무변함에 감격하는 동시에 일사보국(一死報國)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다. 부국강병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는 국민 각자가 신으로부터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실행하는 데 있다. 나는 더욱 가업에 정려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공헌하고자 한다. 신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비행기 헌납을 계속하도록 해주실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14 후지산과 벚꽃

일본의 표징은 후지산(富士山)과 벚꽃이다. 외국인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완만한 선으로 만든 단정한 자태의 후지는 평화와 성정(聖淨)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벚꽃의 매력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개한 벚꽃이 아침햇살에 향기를 내고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그 정결한 풍정에 있다. 벚꽃은 우미(優美)와 고결을 구현하고 있다. 후지도 벚꽃도 일본의 국민성의 표징이다. 우리 국민이 평화를 사랑하고 성정을 숭상하고 우미에 친숙하고 고결에 동경하는 것도 후지의 영봉(靈峰)과 벚꽃의 정령에서 받은 감화에 있지 않다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 국체의 존엄하고 무비함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 명백한 현재의 사실이다. 우리 국체의 기초는 멀리 신칙(神勅)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황실을 국민의 종가로 보고 국가로서 마치 일대 가족 같은 체계를 이루고 있다. 온 나라가 일대 가족 속에 통일되어 있음은 우리 국체에 심심한 의의를 부여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치란성쇠(治亂盛衰) 속에서도 군신상하의 구별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대의명분은 단 하루도 흐트러진 적이 없다. 늘 황실을 중심으로 만민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오늘날의 융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건국 3000년, 연대가 오래된 만큼 때로는 간신들이 설치고 요운(妖雲)이 하늘을 뒤덮은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항상 충성스러운 지사들이 나타나 일신을 바쳐 요운(妖雲)의 배제에 힘썼다. 공도(公道)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해와 달과 함께 밝게 빛난다.

와케노 기요마로(和氣淸麻呂)[30]가 요승(妖僧) 도쿄(道鏡)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지 않았던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管原道眞)[31]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멀리 쓰쿠시(筑紫) 끝자락으로 유배를 당하면서도 달 아래에 은사 받은 옷을 봉지(奉持)하고 향을 피워 절하고 하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군은(君恩)을 욕보인 데 대해 용서를 빈 지정(至情), 난코(楠公) 부자의 진충(盡忠), 시미즈 무네하루(淸水宗治)의 절의(節義), 한 번 난이 일어날 때마다 용기백배, 고(故) 주군을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았던 야마나카 시카노스케(山中鹿之助), 오이시 요시오(大石良雄) 등 47명의 지사들의 충렬(忠烈), 막말 근왕(勤王)의 지사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기개, 일곱 번 인간으로 태어나 국은(國恩)에 보답하겠다며 외치고 여순 항구에 희생한 군신(軍神) 히로세(廣瀨) 중좌, 노구(老軀)임에도 불구하고 국교를 다지기 위해 러시아로 가던 도중 하얼빈 들판의 이슬로 사라진 이토(伊藤) 공, 대군(大君)을 그리워하며 메이지대제를 위해 순직한 노기(乃木) 대장 부부, 묘행진 전투에서 폭탄을 가슴에 품고 적진에 돌입한 육탄3용사, 마찬가지로 상하이 사변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져 포로가 된 신세를 부끄러워하며 자진해서 죄를 폐하께 사죄한 구가(空閑) 소좌,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가의 사표(師表)로 추앙받은 도고(東鄕)

30) 원문에는 '和氣淸磨'로 되어 있으나 오식으로 보임.
31) 원문에는 '管原道實'로 되어 있으나 오식으로 보임.

성장(聖將) 등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름과 같이 배출된 충용·의열한 지사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영령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이는 모두 특이한 일본 국민성의 표현이다. 일단 유사시에는 국민 모두 육탄3용사와 같이 일사보국, 순직함으로써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일찍이 무네나가 친왕(宗良親王)이 "천황을 위해 세상을 위해 무엇이 아깝겠는가. 버려서 보람 있는 목숨이라면"이라고 노래하셨다. 이는 일본국민 모두 갖고 있는 혼의 표현이다. 이와 같이 심정은 고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순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화살통에 매화를 장식한 가지와라 가게스에(梶原景季), 방패를 들고 여러 마리의 날아가는 기러기에 원정을 뜻을 품은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 길 가득 떨어지는 벚꽃을 헤치며 말을 달리는 미나모토노 요시이에(源義家), 적을 앞에 둔 갑판에서 퉁소(尺八)를 분 야시로(八代) 제독, 금주성(金州城) 밖 석양 아래 서서 처량한 전쟁폐허에 감개무량해서 시 한 수를 지은 노기 장군의 우아한 마음 등 모두 전쟁터에 있는 몸이면서도 이런 여유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우미(優美)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평화를 사랑하는 자이기에 비로소 이러한 풍류운사(風流韻事)가 되는 것이다. "비옥한 땅은 후지의 봉우리가 되어, 높고 크게 수천 년 동안이나 솟아 오르고, 열리면 수만 개의 가지에 피는 벚꽃이 되어, 다른 초목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노래한 후지타 도코(藤田東湖)의 「정기가(正氣の歌)」를 읽는 자 중에 어느 누가 충군애국의 지정에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지 않겠는가.

나는 이전에 도쿄에 놀러가서 어느 날 저녁 연극을 본 적이 있다. 제목은 '메이보쿠센다이하기(伽羅先代萩)'였다. 유인(乳人) 마사오카(政岡)의 충절에 대해 울지 않는 자가 없고 화류계의 부녀자조차 조용히 붉은 눈물을 닦으며 흐느껴 울고 있었다. 천한 여자에게도 이러한 귀한 눈물이 있다. 나는 연극보다 관객의 이 눈물을 보고 숙연해지면서 옷깃을 여미고 "일본은 영구히 멸망하지 않으리"라며 감격했다. 일러전쟁, 사하(沙河)의 대진 중 일본의 한 초병은 러시아 병사에게 담배를 주고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이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에게 소금을 보낸 고사도 오랫동안 기억될 품격을 느끼게 한다. 이 아름다운 심사는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부녀자까지 학살한 저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레 항구의 빨치산 따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하가(芳賀)[32] 박사는 일본의 국민성을 논하고 그 특징을 열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충군애국의 정신이 풍부하고 조상을 숭상하고 가명(家名)을 중시하고 초목을 사랑하고 자연을 기뻐하고 낙천적이다. 염세적·비관적 마음은 없고 담백하고 산뜻하다. 고집스러운 구석이나 음험한 성질이 없고 날렵하고 아름다운, 정교한 것을 좋아해서 손재주가 좋은 점, 무슨 일에도 청결과 결백을 좋아하고 예절작법을 중시하고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질을 갖추어 살벌한 풍경이 없는 등, 대체로 옳은 말이다. 일본 국민은 국체에 의해 국민의 자각이 있고 사상 통일의 완전함에 의해 더욱 그 국민도덕의 미를 조성하고 그 국민성 또한 더욱 우미하고 고결 숭대, 다른 것과는 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주옥의 미광을 더욱 갈고닦아 온 나라가 이를 함양하는 공을 쌓을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은 이제 일본을 질시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전율하고 있다. 황화론을 외치고 배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그 표현이다. 이런 때에 일본 국민은 국민도덕을 발양하고, 즉 예절을 지키고 신의를 중히 여기고 인애의 손을 뻗쳐 적대시하는

32) 하가 야이치(芳賀矢一, 1867~1927) : 일본문학자.

세계 사람들을 포옹하고 애호하여 오해를 일소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세계 사람들이 진정 일본을 알고 진정으로 일본의 국민성을 이해한다면 자연히 전폭적인 신뢰를 할 것은 명백하다. 후지의 위용과 벚꽃의 매력을 마음속에 갖고 세계 각국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동화시킨다면 얼마나 인간사회는 행복해지겠는가. 오직 광명만 있는 세계다. 이는 황도 일본의 국시이자 사명이며, 또 일본 국민의 대이상으로 삼는 바이다.

결론 진정한 세계평화로

일본의 국기는 히노마루(日の丸)이고 우리 황실의 문장(紋章)은 16개의 꽃잎이 있는 국화이다. 태양은 환하게 팔굉(八紘)을 비추고 16개의 국화 꽃잎은 꽃술을 중심으로 16방면으로 퍼지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생각건대 해가 그려진 일장기도 국화 문장도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는 일본 국민에 대한 신의 계시이다. 일본은 국체 그 자체가 태양을 비추는(天照) 신(大御神)이다. 태양은 골고루 세계에 평등하게 빛나고 있다. 인애를 사해에 베푸는 일은 태양과 같이 해 뜨는 나라의, 국가와 백성들에게 부여된 만고불유(萬古不渝)의 천분이자 사명이다. 우리나라는 해 뜨는 나라의 황도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나아가 아시아 대륙은 말할 것도 없이 구미를 관통하는 일대 국제도로를 닦아 세계 각 국에 인애의 손을 골고루 뻗쳐 그 덕망으로 감화시켜야 한다. 거기에는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다. 인종평등주의의 큰 깃발을 흔들며 매진할 뿐이다. 이것이 일본의 사명이다. 또 국화 문장도 우리 국체의 표징이다. 즉 중심에 있는 꽃술은 황실이고 16개의 꽃잎은 세계 16방으로 신장하고 전진하는 국민을 의미한다. 일체의 것은 중심에 의해 통일된다. 일본은 황실을 중심으로 총 가족제도 아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충효 · 일치하여 만고 국체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국민은 충군애국을 최고 도덕으로 삼고 황송하게도 천황께서는 "의(義)는 군신(君臣), 정(情)은 부자(父子)"라고 말씀하시고 인황(人皇) 16대 닌토쿠천황(仁德天皇)처럼 3년의 조세를 면제하시어 역대 성천자(聖天子) 또한 항상 민초들에게 대어심(大御心)을 쓰시는 것은 입에 담기에도 황송할 따름이다. 나라의 성립을 달리하고 있는 타국에서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늘 나라가 흔들린다. 충효 · 일치는 우리 국민도덕의 근저이자 정수이며, 국화와 함께 1000년 동안 향기를 낸다. 히노마루를 국기로 삼는 해 드는 나라 일본은 세계를 골고루 비추는 태양과 같이 정의 · 인도의 기수로서 인애를 사해에 베풀고 골고루 황화(皇化)의 혜택을 베풀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야 한다.

일본은 다른 것을 동화하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한편, 일체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큰 조화를 이루는 천분을 갖추고 있다. 대만의 주민도 남양의 토인도 황화에 물들어 모두 입을 모아 그 덕정을 구가(謳歌)하지 않을 수 없고, 대만의 통치에도 남양의 통치에도 비범한 행정적 수완을 보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각 국은 일본이 식민지 통치에서 타국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난 수완과 역량에 경탄하고 모두 일본을 모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을 배우려고 한다. 인애는 곧 힘이다.

불교는 인도의 종교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지만, 그것을 전한 조선도 중국도 그 본가인 인도도 불교가 쇠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만 홀로 법등(法燈)이 빛나 크게 융흥하고 있다. 게다가 불교는 일본에 동화되고 소화되어 지금은 일본의 종교로서 영구의 생명을

지속하고 있다. 기독교는 메이지 초년에 구미인에 의해 일본에 전해진 것이지만, 이 또한 일본에 동화되어 소화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동화하고 조화시키는 일본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이미 국제연맹을 탈퇴했고 또 군축회의를 탈퇴해 다른 데 기대지 않고 자주적 정신으로 난국 타파에 용왕매진하고 있다. 당당한 보무다. 30년 전까지 구미의 흉내를 내는 황색 원숭이라며 조롱을 받고 경멸을 받은 나라가 약진 또 약진, 학술에서도 교육에서도 행정에서도 군사에서도, 또 산업에서도 월등히 뛰어난 이채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구미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얄미울 것임에 분명하다. 스스로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을 우월시하고 있으니 질투도 생기고 반감도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문명은 느닷없이 새삼 탄생한 것이 아니다. 상고 이래의 동양문명의 정수를 씹고 음미하고 소화해서 혈육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물심양면의 문명에 압도되는 일 없이 이를 자신의 약통 속에 있는 약처럼 동화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불합리한 군축회의를 탈퇴했기 때문에 태평양의 방비제한은 올해 드디어 해소되었다. 벌써 영국은 미증유의 국방강화계획에 나서서 싱가포르 · 홍콩 등 극동 방면의 군비확장에 몰두하고 있으며, 미국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군기 330대, 구축함 12척, 잠수함 6척을 새로 건조해 하와이 방비에 급급해 하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연방은 최근 러시아 · 프랑스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해 서구 방면의 국방력을 완화하고 육 · 해 · 공 3군의 대부대를 극동 방면으로 이동할 방침을 취해 다수의 중(重)폭격기를 시베리아 각 방면에 배치했고, 다수의 잠수함을 해체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극동은 드디어 다사다단(多事多端)해지고 있다.

지금 세계의 사조는 안정되지 않고 불안과 혼란의 와중에 빠져 있다. 게다가 악마의 독수는 일본에까지 미치고 있다. 원래 국가 사회의 파괴적 나쁜 사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서 배태되어 절대적인 자유평등을 창도하지만, 절대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의 자유는 자타상호의 관계에 의해 제한받고, 의지의 자유와 같이 절대적인 것일 수 없음은, 인류의 공존공영에 있어서 그 안녕을 유지하고 질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희생적 정신의 발휘를 필요로 하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희생해서 사회의 건전한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국가 사회를 파괴하는데도 여전히 개인의 방종에 맡긴다고 한다면 어디에 안녕과 질서를 찾을 수 있겠는가. 또 어디서 절제와 통일을 볼 수 있겠는가. 일본인으로서 자각을 요한다. 해 뜨는 나라 황도 일본은 개벽 당초부터 조상을 하나로 한 국민이다. 충효 그 본을 하나로 하고, 제정(祭政) 그 규범을 하나로 하고, 정교(政敎) 그 의를 하나로 하고, 군신(君臣)은 부모자식의 의를 갖는 나라이다. 그 어디에 사회적 파괴와 혁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하물며 현재와 장래에 세계 사조의 나쁜 변천에 대해 스스로 나서서 이를 교정하고 개선할 대임을 맡을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일본 국민뿐이다. 일본은 사상에서도 사해를 통일해야 할 중대 책임을 갖는다.

군비(軍備)의 확장에 따른 군비(軍費)의 과대한 부담은 세계 각국 사람들의 고통이다. 이제 군비확장 시대에 들어선다. 각국 사람들은 모두 그 고통에 허덕이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군비확장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우려할 일이다. 이탈리아 · 에티오피아 전쟁 발발 당시 전쟁 방지를 위한 식민지 분할론을 주창한 자도 있었다. 일본 · 독일 · 이탈리아 등에 식민지를 주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행할 수 있어도 전쟁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본에 대해 교격(矯激)한 의견을 발표해서 전쟁을 초래하는 불씨를 키우는 자들이 있고, 또 이를 우려해 일 · 미의 굳은 악수를 주장하고 평화운동에 몰두하는 자도 있다. 일 · 미의 악수 · 제휴는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의 협력 내지 지도가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은 평화론자이자 평화애호의 국민이다. 미국이 일본을 신뢰하고 진정 악수 · 제휴에 나선다면 일본은 기꺼이 이에 응할 것이다. 또 미국의 카네기 평화재단 이사 니콜라스 버틀러 박사는 "오늘날은 세계의 일부에 일어난 전쟁이 일부분의 전쟁으로 한정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미국이 이 와중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방지운동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라며 국제평화와 세계번영으로의 길을 설파하고 있다. 전쟁방지운동도 좋다. 세계 각국이 이 운동에 참가해서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은 가장 필요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심심한 연구를 요하는 문제이다.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세계 사람들은 이미 눈앞에서 본 세계대전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평화운동 · 전쟁방지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참화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군축이 강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정세를 보면 군비축소의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군비의 확장에 급급해 하고 있다. 군비 부담이 국민에게 가해지면 가해지는 만큼 국민들은 힘겨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마침내는 국내는 피폐해지고 기아에 빠져 식량 소동이 발발하여 내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제정러시아의 몰락은 식량 소동이 원인이지 않았던가. 이 소동은 단지 일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각 국에 파급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인류의 번영을 기원하고 세계의 평화를 진정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세계 각 국은 협의해서 어느 일국에만 군비를 맡기고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안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진정 만민이 신뢰하고 경애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를 병탄하고 제멋대로 폭군처럼 행동하는 나라는 안 된다. 국민에게 신의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예양(禮讓)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전폭적인 신뢰와 친애를 기울이는 까닭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이상 달성의 실현에 매진한다면 세계에서 전쟁의 참화를 영구히 방지하는 것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문화도 찬란히 빛나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 대임을 떠맡아야 할 나라는 세계 각 국을 둘러보아도 오직 일본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일본은 결코 호전적인 국민이 아니고 또 타국에 대해 전혀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 각 국이 국비의 반액 이상까지 어쩔 수 없이 과중한 군비 부담을 하는 것보다 그 수입을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 개발에 돌린다면 인류의 생활은 좀 더 윤택한 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고매한 이상 아래 활달하고 명랑하고 강하고 올바르게 모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며 세계평화를 위해 인애의 큰 깃발을 휘날리며 매진할 따름이다. 갈대가 무성한 벼이삭이 자라는 나라[33]는 단지 일본 본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이상은, 황당무계한 주장으로서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세계의 병비(兵備)를 일본 정부에 맡기라

33) 도요아시하라노 미즈호쿠니(豊葦原の瑞穗の國) : 일본을 가리키는 표현임.

고 제창하는 바이다. 일본제국이 육탄비행기 1만 대를 준비해서 전쟁을 벌일 경우 그 어떠한 큰 적도 두려워할 만한 것이 못되고, 수백 대의 결사의 비행기를 희생함으로써 대세는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입을 적군의 손실은 너무나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쓸데없는 유혈참사를 극력 회피하기 위해 적어도 동양의 맹주로서 안정적인 세력자인 일본의 지위를 인정하고 동양에 한해 동양인의 손에 의해 동양 먼로주의의 큰 깃발 아래 대아시아민족의 행복을 기도하고 싶다. 세계평화와 국제신의를 유일한 신조로 삼는 황국 일본은 정의의 나라이자 인도(人道)의 낙토이다. 적어도 황도 일본을 이해하게 된다면 모든 의혹은 곧장 해빙될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지상에 초래하려는 신국 일본의 위대함을 확인할 때 이와 같은 오해는 시라지고, 가령 일본에 세계의 군비를 일임해도 난폭한 짓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진정한 일본의 모습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만큼 평화를 애호하는 국민이 없음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태양은 밝게 세계를 비추고 있다. 해 뜨는 황도 일본의 국민은 태양을 항상 머리에 이고 16개 꽃잎의 국화와 같이 일본을 중심으로 인애의 손을 16방으로 뻗어 대이상의 실현을 향해 보무도 당당히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에 내가 품은 뜻(所志一檄)을 전 인류에 알리어 진정한 세계평화를 지상에 초래하고자 하는 바이다. (완)

(한시 생략)

〈부록〉

육해군기 헌납에 대하여

본 편은 1935년 4월 7일 해군기 헌납의 날에 마이크를 통해 경성방송국에서 방송한 것으로, 당시 잡지 『국방(國防)』에 게재된 것이다.

나는 일전에 육군에 애국기(愛國機)를 헌납하고 오늘은 또 해군에 보국기(報國機)를 헌납한 문명기입니다.

일전에 육군에 헌납했을 때 조선어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국어'[34]로 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어를 그리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모쪼록 잠시 조용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야흐로 글자 그대로 비상시국에 직면했고, 특히 지난 22일 완전히 국제연맹에서 탈퇴했습니다. 세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도리어 국가를 위해 통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찍이 독일의 폐위된 황제 카이저가 주장한 『황화론(黃禍論)』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황색인종은 백색인종의 화근이 된다는 것이 적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인류로서의 우월감에서

34) 일본어.

우리 황색인종을 경멸하고 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의미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일본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황통은 면면히 2,500여 년 이어져 내려오고, 나라를 지키는 데 용감한 결사의 황군이 있으며, 죽음을 보는 것처럼 천황 곧 국가로 한 몸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일원적이고, 세계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만큼 국체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제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특색은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을 통해 포로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중에는 적의 손에 붙잡힌 경우도 약간은 있지만, 모두 칼이 부러지고 탄환이 바닥나 신체의 자유를 잃고 어쩔 수 없이 적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특히 상하이사변의 구가 소좌와 같이 천황폐하에 대해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할복한 일은 장렬하고 귀신을 울리게 하는 것으로, 세계에 그러한 충절 무비한 군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육탄3용사가 묘행진(廟行鎭)의 이슬로 사라진 저 맹렬하고 용감한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독일이나 러시아는 모두 세계의 강국을 불리고 강병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일러전쟁이나 일독전쟁의 저 포로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황색인종은 백색인종의 화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나라와 같은 우월하고, 게다가 세계의 평화를 애호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저는 이와 같이 훌륭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체를 지닌 대일본제국의 신민이 된 데 대해 매우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전에 조선어로 이런 점에 대해 강하게 역설한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35년과 1936년을 국제위기라든가 난국에 조우하고 있다고 하고 국민은 이 국난을 돌파해서 비상시국을 정복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 국방의회가 창설되어 총후(銃後)의 국민은 결속하고 일치해서 이를 타개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초 저 또한 영덕 국방의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완수하고 본분을 충분히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심을 작흥하고 다수의 비행기를 헌납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 보고, 지나치게 나서고 주제넘게도 일전에 약간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육해군성에서도 흔쾌히 받아주는 영광을 얻어 정중하게 대응해 주신 일은 너무나 큰 영광이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본디 비행기라 함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긴요한 병기입니다. 저는 일전에 미국이 5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비행기 800대를 제조해 4,000대를 갖춘다는 사실을 보고 다소 불안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전통의 야마토 다마시(大和魂), 곧 일본정신이 있습니다. 숫자에 있어서는 물론 그들에게 뒤지겠지만 황국정신으로 이를 제압하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를 맞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앞서 헌납한 문명기호(文明琦號)에 타서 이전부터 혈맹한 비행사와 함께 적진에 뛰어 들어가 육탄이 되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각오입니다. 현재 총독부 안에 탄생한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가 비행기의 부족을 우려해 더욱 많은 비행기를 만들어낼 목적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근래 각지에서 기부가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는 눈물겨운 헌금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이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헌금하시길 이 기회를 빌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무이의 국체를 갖고 예부터 의는 군신이고 정은 부자라고 말씀하신 성천자(聖天子)를 위로 받들고 세계의 맹주가 될 운명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우리 조선은 시정 25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혜택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총독 정치는 농촌진흥은 물론 산업개발 · 도시의 발전 등 실로 눈부신 진전을 보이고 있음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마운 국토에 생육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은의 광대무변함에 감사하고 일사보국의 마음을 더욱 공고히 해 신국 일본이 번영하고 또 번영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문

여기에 내가 이 책의 한 페이지를 더럽히는 데 흔쾌히 승낙하게 된 까닭은 저자 문명기 씨가 내 고향 경상북도 사람이고 내가 근무하는 영덕 사람이라는 점 및 지방 공공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계속하고 군치(郡治)에 원조를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환력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정정한 장정을 능가하는 동분서주, 거의 편안히 쉬는 날이 없이 활동 속에서도 휘호와 시를 쓰는 등 더욱 정관(靜觀)하는 사생활을 찬미할 만한 점이 많음을 느끼고 있다.

저자를 위해 인물과 그 사상 내지 이 책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다수의 서문과 기타 충분히 언급된 것으로 믿고 나는 여기에 사족을 다는 일을 피하고 단지 저자의 반면(半面)을 소묘하여 친우의 행동을 칭송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이 책은 그가
경상북도 도회의원이자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 부회장이자
영덕문묘직원(文廟直員)이자
영덕국방의회장이자
영덕 난국시사(蘭菊詩社) 사장으로,

연미복 같은 딱딱한 공인 문명기의 소론, 오시마(大島) 줄무늬 문양의 하카마(袴)를 입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운암거사(雲岩居士)의 담편(談片), 기타 곳곳에 흘러나온 언설 창작의 결정으로, 그의 전모를 엿볼 수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저자는 지인들의 수상(壽像)[35] 건설 제안을 오랫동안 고사하고 거절해 왔지만, 이 책을 그야말로 스스로 건설하는 자신의 수상임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시정 27세의 청년을 축복하면서 각필한다.

황기 2597년[36] 기원절 날.
영덕군수 권영세(權寧世)

35) 그 사람이 살아 있는 중에 만드는 동상이나 초상화.
36) 1937년.

1937년 4월 20일 인쇄
1937년 4월 25일 발행
저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문명기
발행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문명기
인쇄자 대구부 상정(上町) 54번지 카부라기 군조우(鏑木軍三)
인쇄소 대구부 상정 54번지 대구인쇄합자회사
발행소 조선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운암서재(雲岩書齋)

〈출전 : 文明琦, 『(眞の世界平和へ) 所志一橛』, 盈德 : 雲岩書齋, 1937년〉

7. 박흥식(朴興植)

1) 매진할 뿐

바야흐로 전 세계가 고뇌하고 발버둥치고 고통당하고 있다.
열강은 엄청난 형상으로 분화구 위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격동기이다. 분규·혼란은 심각해지고 보편화되어 갈 뿐이다.
진정한 세계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려는가.
실리와 실력 앞에서는 국제 간의 신의도 도념(道念)도 없다. 누구를 원망한들 소용없다.
세계의 비상시이긴 하다.
그러나 비상시 없이 이 국가의 약진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진이 약속되어 있는 비상시를 오히려 기꺼이 극복할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단호히 소신을 향해 '매진'할 뿐이다.
적이 설령 백만 명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기개와 각오를 누가 어찌 하겠는가.
신동아 건설이라는 대사명은 이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다.
장래 국가적 규칙은 어쩌면 더욱 우리에게 속박과 굴레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 자손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를 감수할 것이다.

〈출전 : 朴興植, 「邁進あろのみ」, 『總動員』 第2卷 1號,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40년 1월, 12~13쪽〉

2) 광명의 천지를 향하여

과거 5개년 동안 동아의 평화를 위하여 싸워온 제국은 오늘날 또다시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하여 성화를 들게 되었다.

'일지사변(日支事變)'[37]으로 말하면 공존공영의 향토, 신동아를 건설하려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과 이것을 완수시키려고 모든 희생과 노력을 다하여온 제국의 성심을 종내 이해치 못하고 끝까지 반항하여 온 중경(重慶)정권을 응징하고 각성시키려는 천의적(天意的) 정전(征戰)이 있다. 그러나 이번 타도 영미(英米)를 부르짖고 봉화를 든 태평양전쟁으로 말하면 과거 1세기동안 그릇된 우월감에 빠져서 동아민족을 멸시하여왔고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의 약소민족을 희생시켜온 영미, 또 근자(近者)에 있어서는 동아를 유지하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국의 진의를 역이용하여 동아를 침략하고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오만무례한 앵글로 색슨 영미를 타도하여 동아의 평화 한걸음 나아가서는 세계의 신질서를 재건하려는 도의적(道義的) 성전(聖戰)이다.

20여년 우리 제국은 은인자중하여 참지 못할 것을 참아왔고 양보하지 못할 것을 양보하여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천의에 따라 이 아시아의 적을 물리치는 동시에 정의에 따라 이 인류의 적을 격파하여야 할 때를 만난 것이다.

이 정의의 포성(砲聲)이 태평양의 파도를 높이자 우리 황군정예는 세계전쟁사에 기원을 지을 만한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고 소위 적성포위장(敵性包圍障)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거의 파괴되고 말았다. 동아의 여명 세계의 평화가 올 날도 머지않은 장래의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승을 기뻐하는 동시에 여기에 취하여서는 안 될 것이요. 또 만심(慢心)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투에 있어 승리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각오는 이와 반대로 지구전의 대책을 강구하여 한번 가다듬고 두 번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필승불패의 신념을 가지는 동시에 만전을 기하는 준비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장에는 만전 노련한 '황군(皇軍)'[38] 정예가 있고 총후(銃後)에는 성전 5년을 단련된 우리 비전투 전사가 있다' 이러한 금도(襟度)[39]와 자긍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총후인 우리의 최대의 의무와 노력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여 지도당국과의 혼연일치(渾然一致)한 협조하에 국내의 모든 체제와 태세를 준비하여 우리 황군장병으로 하여금 털끝만한 후려(後慮)도 없이 그 임무에 혜념(惠念)[40]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동시에 국내전쟁수행의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여 보면 첫째 고도국방국가의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전쟁은 종래의 사변과도 달라 어느 때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적기가 떠오를 지도 예측하지 못할 바이요. 어느 때 공습의 참극을 눈 앞에 볼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방첩(防諜)에 대한 관념을 전보다 더욱 철저케 하여야 할 것이다. 황군을 신뢰하고 정부를 신임하여서 유어부설(流言浮說)에 미혹치 말 것은 물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一擧一動)에 주의하여

37) 중일전쟁.
38) 일본군.
39)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
40) 남이 헤아려 돌보아 줌을 높여 이르는 말.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이라도 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 전쟁은 경제전이라고 한다. 경제의 파괴는 패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국가 금융대책에 순응하여 극도로 통화팽창을 경계하는 동시에 일사반립(一糸半粒)의 물자라도 절약하여 물자의 확보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돌아오는 날 그대의 우리 국력의 진전은 문자 그대로 호화스러울 것이다. 우리 반도인이 각각 자기의 직역(職域)을 통하여 대동아공영권 내에 일대약진을 하여야 될 기회도 이때이다. 금일까지의 전통적 소극적 의기-소극주의를 단연 타파일척(打破一擲)하고 세계의 활무대(活舞台)로 활동의 날개를 펴야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영영 '시대의 낙오자'가 확립되어 호주(濠洲)까지를 그 권내에 넣게 된다면 지금의 일본, 조선, 사할린(樺太), 대만, 만주를 합한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은 약 12배나 되는 2,400만평방천의 면적으로 변하여 실로 광대하고 광명 있는 천지가 될 것이다.

이때의 우리는 아무 것이라도 좋다. 혹은 호주로 진출하여 목축을 경영함도 가능하다 혹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나 태국(泰國)에 진출하여 농사에 종사함도 가능하다. 무진장한 자원을 이용하여 혹은 생산업 혹은 무역을 도모함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무슨 직업이든지 불문하고 총립 총진출하여 제국국책에 순응하여 국가백년대계의 기초를 굳게 세워야 할 천여(天與)의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최후의 승리를 목표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자. 우리나라 역사의 영예를 위하여 우리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

끝으로 성수무강(聖壽無疆)과 아울러 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축원하고 이것으로 끝을 막는다.

〈출전 : 朴興植, 「光明의 天地를 향하여」, 『朝光』 8卷 2號, 1942년 2월, 113~114쪽〉

3) 대조(大詔)를 받자옵고 광영을 빛내오리

국정 참여의 반갑고 고마운 이 획기적 사실은 반도 2천 5백만 동포의 오직 감격과 감사 속에 황국에 바치는 충성심으로 충만하여 있다. 더구나 황공하옵게도 4월 1일에는 천황폐하께옵서 국정참여에 관한 조서(詔書)를 환발(渙發)하옵시어 반도인으로 하여금 ……(1줄 판독불가)…… 이는 오직 일시동인(一視同人)의 홍대(鴻大) 무변(無邊) 하옵신 어성려를 내려 주시옵신 바로 이 광영이 감격은 끝이 없으며 고마옵신 성려에 봉답하기 ……(1줄 판독불가)…… 다할 것을 이때 더욱 깊이 가슴에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 항상 황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하고 이 중책을 다하기에 발분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태평양전쟁을 싸우는 우리 국민으로 더구나 이 전쟁을 완수하기에 정진하는 신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에 조금도 유감없는 수련을 쌓고, 나아가서는 이 수련을 실행으로 발휘하여 자각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국정참여의 큰 뜻을 빛내고 황은에 만분의 일이라도 봉답하도록 당자□ 자각하고 충심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출전 : 朴興植氏 談, 「各界 人士의 感激과 感想-大詔를 받자옵고 光明을 빛내오리」, 『매일신보』, 1945년 4월 5일〉

8. 송문헌(宋文憲)

1) 싱가폴 함락에 부쳐

황해도지사 산본문헌(山本文憲. 야마모토)[41]

한번 성단(聖斷)이 내리자 진무(神武)의 군(軍)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영국 동방 침략의 거점 싱가폴을 마침내 공략해 일장기를 서태평양에 펄럭이고 대동아전쟁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삼가 대어능위(大御稜威)의 빛을 받아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용감히 전투한 황군(皇軍) 장정 각위에 대해 온몸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영국이 세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까지 호언장담한 아성(牙城) 공략의 결과, 우리나라는 대동아의 전략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요지역을 우리 관제하에 두는 등 그야말로 전황 진전에 획기적 의의를 부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동아 경제의 뼈대는 이로써 큰 균열을 가져왔고 영제국의 위세를 더욱 퇴색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전은 숭고한 건국(肇國)의 이상에 심연(深淵)하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수립의 성전(聖戰)으로서, 국민은 그 심원한 성격을 깊이 인식해 필승불패의 신념을 더욱 견고히 하고, 현혹되거나 좌절하는 일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총후(銃後)의 철벽진을 굳게 다짐으로써 인정으로도 물적으로도 반도가 떠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도인(半島人)'[42] 제군은 이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대패(大旆) 아래 결집해서 완전하게 황국신민(皇國臣民)이 되어 대동아 민족 향도(嚮導)의 중책을 맡기 위해 진전·향상에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물며 적은 만만치 않은 호적(豪敵), 반드시 싸움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만반의 태세를 다시 갖추어 전세를 만회하려고 권토중래를 도모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에 취하지 말고, 견고히 대지에 발을 내딛고 서서 이른바 와신상담, 뿌리와 온몸의 힘으로 부딪혀 싸워 이겨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부러라도 하기 힘든 어려움을 참고 함께 앞으로 더욱 더 강화·요청되어야 할 여러 시책에 대해 과감히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성지(聖旨)를 받들고 있는 장병 각위의 무훈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출전 : 山木文憲, 「新嘉坡陷落に就て」, 『東洋之光』 第4卷 第3號, 1942년 3월, 46~47쪽〉

41) 송문헌(宋文憲)의 창씨명.
42) 조선인.

9. 서춘(徐椿)

1) 조선동포의 대동아 전쟁관

우리나라와의 전쟁 상대인 미국 · 영국 · 장제스(蔣介石) · 네덜란드의 면적과 인구를 우리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면 적의 총면적은 우리 일본의 면적의 50배이고, 총인구는 우리 일본의 거의 10배이다. 면적에서 보자면 76만 5,000평방킬로미터를 갖고 3,830만 평방킬로미터를 상대로 싸우는 셈이고, 인구에서 보자면 불과 1억을 갖고 10억을 상대로 싸우는 셈이다. 만약 맹자의 이른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이길 수 없고, 적은 군사는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철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방대한 면적과 많은 인구를 동시에 적으로 삼아 전쟁을 시작한 우리 일본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맹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든 간에, 또 세계가 어떻게 보고 있든 간에 "대동아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갖고 과감히 일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 이 논고의 목적이다.

먼저 이번 전쟁의 성격을 생각해 보건대, 동서의 전쟁 모두 기존의 전쟁처럼 할양지와 배상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25년 전의 전쟁은 엄청난 규모와 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에도 결국 패전국의 할양지와 배상으로 종식을 고했다. 붕괴한 것은 단지 오스트리아 한 나라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일단 항복한 패전국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열국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독일의 국력 증대가 너무 빨랐다는 사실이다. 즉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쪽인 연합국이 패전국 독일을 재기 불가능하도록 억누르기 위해 토지를 빼앗고 배상을 부과하고 군비를 극도로 제한했는데, 단단히 묶어 두었을 터인 독일이 불과 4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영국 · 미국 · 프랑스를 능가하는 정도로까지 강해진 것이다. 이 사실만을 보더라도 이번 전쟁은 한 쪽의 할양지 · 배상 · 군비제한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아울러 또 하나의 객관적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교통 · 과학 · 병기의 발달에 기인하는 이유이다. 인류 4000년의 역사를 고려하면 일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토지의 면적은 교통 · 과학 · 병기의 발달 정도와 정비례해서 점차 확장되어 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때는 국토가 확장되더라도 교통, 과학, 병기의 발달 정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국토는 다시 수축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국토, 로마제국의 국토, 칭기스칸 · 쿠빌라이의 국토, 나폴레옹의 국토가 유지되지 못한 것은 당시의 과학 · 교통 · 병기의 발달이 당시의 광범위한 국토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소국이 많고 현대로 내려올수록 한나라의 국토가 점차 확대되어 왔음은, 여기서 말하는 국토 대(對) 과학 · 교통 · 병기의 관련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번 동서의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약 4반세기의 과학 · 교통 · 병기의 발달은 사상 미증유의 비약적 발달이었다. 인류 400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보건대, 그 어떤 시대의 25년간의 과학 · 교통 · 병기

의 발달을 보더라도 이 4반세기 동안의 발달과 비교하면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다른 시대의 거의 200년~300년을 필요로 하는 발달 정도를 불과 4반세기로 축소시켜 성취한 것과 같다. 과학 · 교통 · 병기의 이러한 경이적 발달은 한 나라의 지배하에 놓이는 국토의 넓이를 지금과 같은 상태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다. 현재의 열강 중에서 몇몇 나라를 깨부수고 남은 열국의 세력 범위를 더 확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예컨대 영국 · 미국을 철저하게 깨부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도쿄(東京)에서 오사카(大阪)까지 기차로 11시간, 또 도쿄에서 광둥(廣東)까지 비행기로 11시간 걸린다고 한다면, 도쿄에서 계산한 거리는 오사카도 광둥도 동일하다. 이러한 계산으로 가면 도쿄에서 호주, 네덜란드령 동인도 부근까지 비행기로 날아가는 시간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신의주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계산이 된다. 나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확립이 가능하다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단정한다.

이상으로 나는 ①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 패전의 경험, ② 그 뒤 20년간의 빠른 독일 부흥, ③ 과거 4반세기 동안의 과학 · 교통 · 병기의 경이적 발달이라는 세 가지를 들어 이번 전쟁은 동서의 어느 전쟁을 불문하고 할양지 · 배상 · 패전 측의 군비제한 등의 방법에 의해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 쪽의 할양지 · 배상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끝날 것인지가 다음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즉 우리도 적도 전 국력을 기울여 어느 한쪽이 완전히 피폐해서 붕괴할 때까지 싸운다. 따라서 싸움은 필연적으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배상, 할양지 정도로 끝나지 않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장기전이 된다. 이런 점이 이번 전쟁이 종래의 전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까닭이라고 본다.

이번 전쟁은 할양지 · 배상 정도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쪽이 붕괴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싸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적에서 보더라도, 인구에서 보더라도 큰 격차가 있어서 작은 세력으로 큰 세력을 상대로 싸우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필승의 신념은 결코 우리 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자.

먼저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 국민은 이미 '지나사변(支那事變)'[43] 5년의 경험으로 분명히 깨달았다. 때문에 그 논리를 설명하는 데 많은 말을 낭비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기에 굳이 몇 가지를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맹자는 앞서 언급한 것("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이길 수 없고, 적은 군사는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없다")과 같이 말을 했지만 인류 4000년 역사의 실제는 정반대이다. 4000년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이긴 역사이고, 작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지배한 역사이다. 역사 이전의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 그러했을 것이다. 3000년 전의 무왕은 불과 3,000명이라는 적은 병사를 이끌고 은(殷)나라 주(紂)의 1억 명이라는 대군을 상대로 싸워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무찔렀다. 요는 모두 정의가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토의 대소 또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700년 전 몽고의 칭기스칸 · 쿠빌라이는 불과 십 수만 명 무지몽매한 몽고족을 이끌고 일어나 아시아대륙의 전부를 정복하고 그 말발굽은 구라파의 헝가리까지 미치지 않았던가. 요는 아군의 전투정신과 훈

43) 중일전쟁.

련 · 단결 정도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요컨대 인류의 역사는 정의의 편에 서서 굳게 단결한 소수가 부정하고 불의하며 용맹하게 싸우려는 정신이 부족한 다수에 이기고, 또 이를 지배해온 기록이다. 무왕과 쿠빌라이의 예는 그 가장 현저한 예인데, 동서양을 불문하고 역사의 각 항은 모두 이에 대한 기록이고 증거이다. 무왕은 방백리(方百里) 정도의 작은 토지에서 일어나 일거에 중국 400주(州)에 군림했다. 그 면적은 1대 50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몇 천배에 달한다. 쿠빌라이는 몽고족 십 수만을 이끌고 몽고의 일각에서 일어나 저 멀리 구라파의 헝가리까지를 그 말발굽 아래 두었다. 사람 숫자에서 보건대 1대 10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몇 백배 · 몇 천배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본은 대동아권 내의 10억의 주민을 영국 · 미국의 압박 · 굴레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려는 것이니, 정의는 단연코 우리 일본에 있는 것이며, 부정하고 불의한 것은 영국 · 미국 측에 있지 않겠는가. 필리핀에서, 말레이에서 황군이 가는 곳의 주민들이 음식과 물을 주며 황군을 환영하는 것은 정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다음으로 용맹하게 싸우려는 정신에 있어서, 단결심에 있어서 우리 대일본제국의 국민은 단연 세계열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점은 영국 · 미국의 국민은 도저히 우리 일본 국민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우리 일본은 정의의 편에 서 있으며, 굳게 단결하고 있다. 이는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일본에 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자 증거이다.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해도 알 수 있다. 즉 무왕이 불과 3,000명을 이끌고 그렇게 큰일을 해냈고, 칭기스칸과 쿠빌라이가 불과 십 수만 명으로 그렇게 큰일을 해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면 단결력에 있어서, 용맹한 정신에 있어서, 병기의 우수함에 있어서, 문명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우리 일본이, 게다가 세계 총인구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신민을 갖고 있는 우리 일본이 저 영국 · 미국 · 장제스를 물리치고 대동아공영권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부에는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모양이다. 즉 "5년 동안이나 계속된 지나사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 영국 · 미국 두 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행히 서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바라건대 최후까지 행운이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필승의 신념이라 할 수 없다.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

첫째, 지나사변 발발과 동시에 우리 일본은 영국 · 미국과도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나사변 이전부터 이미 영국 · 미국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사변 이후에 관한 일 만을 보더라도 영국 · 미국은 장제스에게 다수의 군사고문을 보냈다. 전쟁자금을 빌려줬다. 무기를 제공했다. "다른 사람의 샅바로 씨름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장제스는 5년 동안 영국 · 미국의 샅바로 우리 일본과 씨름을 한 것이다. 이를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나사변 발발과 동시에 영국 · 미국과도 싸운 셈이다. 그런데 이는 지나사변이 몇 백 년 지속되어도 마찬가지일 테니 장제스를 철저하게 깨부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영국 · 미국을 물리쳐야 한다. 이 논리는 지금 깨달은 것이 아니다. 지나사변 당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일본은 필승의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5년을 보낸 것이다.

어쨌거나 지나사변 5년 동안 우리 일본은 이미 전쟁목적의 90% 이상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 본 지나사변의 전쟁목적은 중국에서의 반일용공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일본과 굳게 제휴하는 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다. 배상은 필요 없다. 토지도 필요 없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런데 이 목적은 이미 훌륭하게 달성하지 않았는가. 보통은 "황군이 중국에서 점령한 지역은 주요도시와 이를 잇는 철도연선뿐이다. 이를테면 점과 선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도시 혹은 철도연선에서 3리만 벗어나면 장제스의 군대나 비적들이 있어서 위험하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한다.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러한 논자의 결론은 틀린 것이다. 가령 소를 제어하는 데 소의 몸 전체를 묶을 필요는 없다.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편하다. 간단히 코에 코뚜레를 끼우기만 하면 된다. 말을 제어하는 논리도 같다. 중국이라는 소 혹은 말을 제어하는 데 중국 전체를 방방곡곡 점령할 필요는 없다. 주요도시와 철도연선만 손에 넣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만으로 중국은 이미 코뚜레를 끼운 것과 같고 재갈을 물린 셈이 된다. 고삐를 잡고 있는 우리 일본의 뜻대로 된다. 동쪽으로 이끌면 동쪽, 서쪽으로 이끌면 서쪽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이는 지나친 추상론이라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 수도 있다. 중국 중부의 상하이 · 난징 · 항저우 세 곳을 연결한 삼각형 지대를 '델타' 지대라 하는데, 이 델타 지대는 놀라울 정도로 물자가 풍부하다. 쌀만 보더라도 4,000~5,000만 석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대의 치안상태도 점과 선을 벗어나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은 중국의 다른 점령지역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난징 · 항저우 두 곳을 잇는 방비선을 확보함으로써 쌀은 단 1석도 장제스 쪽에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풍부한 쌀이 우리 일본에는 1석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슨 까닭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즉 성전이 내세운 목표에서 보건대 그쪽 주민들의 생활을 무시하면서까지 쌀을 일본에 가져오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를 전리품 취급을 하며 가져올 생각이라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 성전을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며, 영국 · 미국식 침략주의 · 착취주의와 다른 점이다. 이 델타 지대의 일은 단지 예로 든 것뿐이고, 기타 점령지역도 모두 같다. 과거 5년 동안의 황군의 용전분투에 의해 전쟁목적의 90% 이상을 이미 달성했다는 것은 이러한 엄연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과 선을 3리만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의 진상에 어두운 자의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는 뿔을 만지면 공격하게 마련이다. 말은 뒤쪽으로 다가가면 차기도 한다. 군자는 위험에 다가가지 않고 위험한 곳은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점과 선을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것은 소와 말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을 따름이다.

다음으로 지나사변은 장제스 측에서 보면 전쟁이다. 잔혹한 전쟁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실전적 연습, 혹은 연습적 실전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장제스는 전력을 기울여, 또 부족한 부분은 영국 · 미국 등의 나라의 힘을 빌려 싸웠지만 연전연패, 마침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잃고 쓰촨(四川) 일각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참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장제스의 패전이 바로 참패에 해당한다. 아무리 장제스가 강변을 하더라도, 한쪽에 전력을 남기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일본은 어떤가 하면, 우리나라는 5년 동안 한편으로는 장제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력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다. 5년 동안 우리 일본이 해온

일에서 장제스와의 전쟁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었고 전쟁준비가 주된 것이었다. 새로운 전쟁의 준비 쪽이 주였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 일본의 국력은 소모되기는커녕 도리어 사변 전에 비해 수십 배 증가했다. 그저 자존심만 강하고 그에 비해 둔감한 영국·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덕분에 오늘날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이 다소 궁핍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대답도 간단하다. 즉 민수품(民需品) 일부를 국방력 증강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나사변을 전쟁이라 하면 우리 군은 실습 정도의 전쟁을 했다. 왜냐하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전연승, 아주 작은 희생만 치렀기 때문이다. 또 지나사변을 연습이라 하면 우리 군은 실전 그대로 연습을 했다. 연습은 역시 연습일 뿐, 보통의 연습을 해서는 아무래도 병사들은 실전감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지나사변의 경우에는 보통의 연습의 경우와는 다르다. 장제스의 군대가 쏘는 총알에 맞으면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령 결과적으로 보건대 연습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다 해도 이에 임하는 황군 장병들은 실전감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실전 그대로의 연습이라 한다. 5년 동안 교대로 실전 그대로의 연습에 참가한 장병들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곧바로 알 수 있다. 세계가 넓다고는 하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실전 그대로 맹훈련을 한 육해공 장병 ○○○○만(원문一역자) 이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이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생산력 확충으로 국력을 사변 이전의 수십 배나 증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원문一역자) 이상의 육해공 장병들에게 실전적 맹훈련을 시켜 대동아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전에서 세계를 경악케 할 정도의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일시적으로 운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다.

또 우리는 지나사변 5년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실로 귀중한 경험을 했음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장제스의 전술전략은 중국 고유의 전술전략이 아니고 그의 독특한 발안에 따른 전술전략도 아니다. 영국·미국의 군사고문의 지도에 따른 전술전략이었다. 다시 말해 영국·미국의 전술전략이었다. 따라서 사변 5년 동안 연전연승한 것은 실은 영국·미국의 전술전략에 이겼음을 의미한다. 지나사변을 통해 영국·미국의 전술전략을 음미하고 그 뒤통수를 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황군이 얻을 수 있었다. 또 장제스의 군대가 휴대하는 병기는 육해공의 병기를 불문하고 대부분 영국과 미국 양국에서 만든 것이다. 이 또한 장제스의 군대에서 빼앗았기 때문에 일일이 해부해서 연구하고 그 종류와 성능을 전부 파악하게 되었다. 지나사변 5년 동안 우리 군은 영국·미국의 전술전략을 꿰뚫게 되었다. 영국·미국의 병기의 종류와 성능도 전부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은 지나사변에서의 다른 어떠한 전과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실로 귀중한 경험이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이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대동아전쟁을 시작했기에 서전에서 그렇게 큰 전과를 올린 것이지, 결코 우연한 전과가 아닐뿐더러 일시적으로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다. 이를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영·미는 장제스를 돕고 항일(抗日)에 열중한 나머지 5년 동안 그들의 전술전략을 우리 일본이 꿰뚫고 있고 병기의 종류와 성능을 파악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영국과 미국은 지금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나사변 5년의 전과에 의해 영국·미국 격쇄(擊碎)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귀중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광둥(廣東)을 점령하지 않고는 홍콩(香港) 공략은 어렵다. 프랑스령 인도네시아의 진군 없이는 말레이의 공격은 어렵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나사변 5년의 전과가 대동아전쟁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하면 지나사변 5년은 영국·미국과 싸우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서전의 큰 전과가 우연이 아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기에 이긴 것임을 알 수 있으리라. 이를 반대로 말하면 만약 지나사변 5년의 전과 및 경험 없이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황군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서전에서 그렇게 큰 전과를 올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우리 건국이상을 현현하는 데 있어서 지나사변 5년의 전과는 실로 높이 평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품고 있는 감상, 즉 "5년 동안이나 계속된 지나사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영국·미국 두 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운운" 하는 생각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즉 "지나사변 5년 동안의 전과, 경험과 국내의 준비로 영국·미국에 대한 승산을 확립하고 준비를 갖추어 필승불패의 신념 아래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일어선 것이다. 이 준비와 경험이 있었기에 서전에서 그렇게 큰 전과를 획득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제아무리 수십 년·수백 년 계속되어도 승리는 단연코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수정되어야 한다.

또 영국·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점과 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홍콩·마닐라·싱가포르 등 약 30곳을 손에 넣었지만, 남방이 넓다고는 하지만 수십 곳을 손에 넣어두면 충분하고, 이들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점령할 필요는 없다. 결코 그럴 필요는 없다. 예컨대 뱀을 죽이는 데 꼬리에서 머리까지 잘게 자를 필요는 없다. 머리만 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준비와 신념이 있어서 일어선 것이다. 따라서 결코 패할 걱정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승에 취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이제부터이다.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방에 강적이 있으니 그저 남방에만 신경을 쓰고 북방의 방어를 느슨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북방의 일은 반도에 살고 있는 2,400만 신민(臣民)들이 모두 떠맡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 일본 내지의 7,000만은 북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해서 남방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는 이것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인적 자원의 구성 비율에서 보더라도 또 지리적 위치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념이 있어서 일어났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일억일심(一億一心),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42년 3월 5일 각필(擱筆))

〈출전 : 徐椿, 「朝鮮同胞の大東亞戰爭觀」, 『朝鮮』 1942년 3월호, 25~35쪽〉

2) 조선총독 고이소(小磯)장군론

매일신보(每日新報) 주필 서춘

호담뇌락(豪膽磊落)한 노력가(努力家)

정3위 훈1등 공1급 육군대장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총독은 1880년 3월 야마가타현(山形縣) 신조촌(新庄村)의 사족이며 오가이군(最上郡) 군장인 고이소(小磯進)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에는 순직 쾌활한 성격과 귀공자다운 모양을 가져서 야마가타현립중학교(山形縣立中學校)에는 지금도 고이소 총독의 학생시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늙은 교원들 사이에 주고 받아진다. 동 중학 재학 중에는 기계체조가 득의였고 언제든지 일요일에는 도보로 160리나 떨어진 신상촌의 부모에게 문안을 드려서 효성의 지극함에 좌우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다.

성적은 그다지 우수한 편은 아니어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보결인가 맨 끝으로인가 들어갔으며 육군대학 12기 졸업 성적도 이관중치(二官重治), 삼산원(杉山元), 향추향(香椎香), 평매기연태랑(平梅崎延太郎), 연준육(烟俊六), 진진차(秦眞次) 장군들의 뒤였다. 1901년에 육군소위가 되어 1937년 육군대장에 승진할 때까지에 보병 제50연대장 참모본부과장, 육군 항공본부 총무부장, 육군성 정비국장, 중일전쟁 당시에는 군무국장 겸 군사참의원 간사장 아라키(荒木) 육상 때의 차관을 지나서 1932년 무토(武藤) 원수를 따라 관동군 참모장이 되고 1934년 제5사단장으로 1935년 12월에서 1938년 7월까지의 국제정세가 점차로 폭발하려는 분화산처럼 급박해 질 때에 조선 군사령관의 중대책임을 완수한 다음 1939년 4월에서 8월까지의 히라누마(平沼)내각과 194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요나이(米內)내각의 두 차례에 걸쳐 척무대신에 친임되어 초비상시국하의 척무행정에 찬연히 빛나는 정치적 족적을 남겼다.

소기 총독은 일찍 좌관(佐官)시대부터 세가와(瀨川章友),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양 장군과 함께 출우(出羽)지방 출신의 3호걸이라고 별명을 들으면서 장차 제국의 육군을 두 어깨에 짊어질 것이라는 촉망을 한 몸에 모았었다. 용모는 호장하고 성격은 활달하나 끝까지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일면을 가진 절대의 노력가이다. 1917년경 총독이 아직 중좌였을 때 현재 연맹총장 파전(波田)중장이 육군대학 학생시절에 동 대학에서 병요지지(兵要地誌)를 강의하였는데 그때 벌써 조선 관문 사이의 해저터널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젊은 장교들의 피를 끓게 하였다. 소좌시대에 저술한 『국방자원론』은 오늘의 대동아 경륜의 근본이념과 구상을 같이하여 국민 각층 각계의 절찬을 받았으며 항상 웅대한 구상과 선구적인 판단력을 발휘하여 일부에서는 '소기의 대포'라는 소리도 들었으나 그 대포가 하나도 조준이 틀림없이 맞게 되어 소기 총독의 식견의 치밀함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륙에의 관심은 향토의 대선배 사토 모부히로(佐藤信淵)의 혼동비책(混同秘策)의 대륙 경륜론에 자극되어 소년시대부터 움트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육군부대에서도 중국통으로 알려오다가 만주사변이 폭발하자 당시 군무국장이였던 총독은 군사외교의 일원화를 비롯하여 경천동지의 대활약을 하여 만주사변 처리의 절대한 공적을 남긴 후 다시 관동군의 참모장으로서 전 세계의 시청을 모으면서 만주국 발전을 위하여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전 부문에 걸쳐 소년 때부터 가슴에 그려오던 국가 경영의 방책을 구현시키려고 놀라운 활

약을 하였던 것이다. 항상 육군성의 군무국장의 자리는 육군대학의 수재만이 차지하는 전통을 총독이 깨뜨렸을 때 놀랐는데 세상 사람은 이때부터 '정치가 소기'의 존재에 새로운 놀람과 기대를 더욱 크게 하기 시작하였다.

총독은 공사를 가장 엄격하게 구별하는 전형적인 무인이다. 공인으로서의 정복을 입었을 때에는 위풍이 좌우를 진압케 하여 오히려 가까이 하기 힘든 느낌까지 주는 한편, 한번 정복을 벗고 사사로운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실로 인정이 샘물처럼 솟아 흐르는 온정가이다. 일찍이 조선군사령관 시대에 부하의 장교 한사람이 결혼을 하고 인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때마침 감기로서 이불을 덥고 누워있던 총독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 현관에 나와서 정중히 신혼부부를 맞이한 다음 "대단히 반갑다, 아무쪼록 부부화락하게 아들딸 많이 낳고 국가에 봉공하여 달라"고 마치 가부와 같이 간곡한 축하의 인사를 하여 그들 젊은 부부를 감격케 하였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서 부하들은 모두 소기 장군을 친어버이와 같이 경모하고 있다.

남화(南畵)와 서도(書道)의 대가(大家)

총독은 실로 경건한 경신가인 동시에 가장 성스런 종교가이기도 하다. 일찍이 제19대의 조선군사령관으로 있을 때 사령부 직원들에게 항상 훈시한 것은 세계에 빛나는 성신(性神)의 대도이며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황국의 대이상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불단 앞에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법화경을 외우는 일련종(日蓮宗)의 독신가라는 것은 부내 신당정(新堂町)에 있는 총독의 생질녀 다카하시(高橋登茂)여사가 이야기하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총독의 일상생활의 한 폭이다. 또 비상히 근엄한 사무가인 한편에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따를 수 없는 공부가이다. 두 번째의 척무대신이 되어 대만(臺灣) 시찰을 갔을 때에 백도를 넘는 찌는 듯한 더위를 무릅쓰고 온 섬 안의 곳곳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순찰을 하고 사탕의 경작을 직접 지도하여 도민들에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음은 정치가로서의 사무적인 근엄한 성격을 대표하며 조선 사령관 당시에도 밤 12시 오전 2, 3시까지 전등불 밑에 단연히 앉아서 독서삼매경에 빠지고 있던 것은 총독의 비범한 노력가로서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전혀 방면이 다른 경제 교육 종교 사회 관계의 회합에 초대를 받아 출석하여도 강연할 것을 미리 준비해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으나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한 말 한마디 마다 주옥과 같이 빛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열렬한 대웅변이여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탄케 하는 해박한 학식과 깊은 연구를 가졌다.

총독의 취미는 많고 넓어서 여기에도 특징이 뚜렷하다. 승마, 궁도, 당구는 물론이고 단가(短歌)와 서화와 가도(歌道)는 너무나 유명하다. 갈산(葛山)이라는 아호를 가지고 흰 종이 위에 살아있는 용이 뛰는 듯한 힘찬 필력으로 웅건한 성격이 여실히 나타나게 쓰는 글씨는 고(故) 견양목당(犬養木堂)과 함께 당대 정치가들 중에서 명필의 이름을 떨쳐서 서도 애호가들의 찬탄을 한 몸에 모으고 있다. 자기 자랑을 극히 싫어하는 총독에게서 오직 한 가지의 자랑을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이다. 근엄하고 위장한 체구에서 봄 꾀꼬리처럼 부드럽고도 연연한 목소리로 반도 정서가 사무친 백두산절(白頭山節)은 그 노래의 총본가 우에다(植田國境子)도 황홀한 속에서 감탄을 연발하게 하는 명창이다. 그리고 갈산이라는 아호는 총독이 어렸을 때부터 한적(漢籍)를 탐독하고 그 후 대좌시대